

2021 겨울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유입 의향
-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지아 jigeumaa@krei.re.kr, 서동주 tjsuh@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2
4. 농축산물 수출입	24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1
2. 엽근채소	36
3. 양념채소	42
4. 과일	49
5. 과채	56
6. 축산	64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 1. 조사 개요 71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73

특별주제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유입 의향 89
-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와 시사점 101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21년 4/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되었고 정부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 2021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76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47만 명으로 나타남.
- 2021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감소함. 2021년 1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및 온라인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각각 5.2%, 4.6%, 1.4%, 2.8% 상승함.
- 2021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5.8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2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상승함.
- 2021년 11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1%, 1.0% 증가하였음. 2021년 12월 시장금리(국고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국고채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2월 하순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으로 반등함.
- 2021년 4/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위وان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원/유로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음.
- 2021년 3/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2.3%, 중국 4.9%, 일본 -0.9%, 유로 2.2%를 기록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21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3% 증가함.
- 2021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3.0%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1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하였지만, 전기 대비 1.1% 하락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전기 대비 1.5% 상승함.
 -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12.1%, 2.8% 상승함.
- 2021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7로 전년 동기 대비 4.5%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 개선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2.1%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6.9%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21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3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11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87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함.

III. 특별주제

1. 청년 대학생의 농촌 유입 의향

- 고령화,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청년을 필요로 함. 청년 중에서도 대학 졸업생의 농촌 진출은 농촌의 고급인력 결핍과 도시의 고급인력 잉여 현상을 접목시키면, 청년 실업과 농촌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사회적 당면 과제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 429개 학교에 295만 명이 대학 재학중임(학년별 65~90만 명). 이들의 2/3가 매년 취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함.
- 대학생(1,692명) 대상 설문조사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농촌 유입 의향, 농촌 관련 진로의식 등을 조사함.
- 대학생들의 농촌 거주 의도를 보면, ‘소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은 10.6%, ‘적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은 2.0%였는데, 이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해 추정해보면, 매년 많게는 6만 여명(소극적 의도자 포함), 적게는 1만 여명(적극적 의도자만 의미)의 규모임.
- 대학생의 농촌 거주 의도 관련 변인으로 개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학력, 과거 경험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관련 미디어나 신문·잡지를 자주 보는지의 여부, 과거 농촌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고, 농촌 거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족과 친구가 자신의 농촌 거주를 찬성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 일자리 구하기 및 농촌 주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자신감 정도 등이 있었음.
- 과거에 농촌에서 산 경험이 있을수록 향후 농촌 거주 의도가 높은바, 청년들에게 농촌 거주 경험을 확대·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농촌 거주 경험은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이루어져 사계절 변화에 따라 농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시도·경험해보는 것이 향후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 그 중에서도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농촌 거주를 찬성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농촌 거주 의도가 높은바 대학생 대상 농촌 거주 프로그램은 ‘개인’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농촌에 관한 미디어를 자주 접할수록 농촌 거주 의도가 높은바, 소셜 미디어를 농촌 거주 관련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 농촌 거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커뮤니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와 시사점

- 디지털 무역의 확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확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를 파악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음.
- 농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
 - 디지털 무역은 크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 국경 간 정보이전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농식품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임.
 - 농식품 전자상거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며 초보적 단계임.
-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 다자통상을 대표하는 WTO,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FTA, 주요국 간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농식품 수출 이슈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온라인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 등임.
- 농식품 수출업체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술 인지도(4점 척도)는 어느 정도 아는 수준(평균 2.0)이며, 평균 사용률은 18.5%로 낮은 수준임. 디지털 기술 사용 난이도(5점 척도)는 보통 이상(평균 3.3)이며, 수출 확대 유용성(5점 척도)은 보통 수준(평균 3.1)으로 평가함.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부재와 디지털 기술 설치 및 유지비용을 다수 응답함.
- 시사점
 -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으로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설정하고, 대응방향으로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1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함.
- 202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전기 대비 0.5%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p					2021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0.9	-1.3	-3.2	2.2	1.1	4.0	1.7	0.8	0.3	1.1(4.1)
민간소비	-5.0	-6.6	1.2	0.2	-1.3	3.6	1.2	3.6	-0.2	1.7(6.3)
정부소비	5.0	1.6	1.0	0.1	-0.4	5.5	1.6	3.9	1.3	1.1(8.1)
건설투자	-0.4	0.1	-2.9	-3.9	3.5	-1.5	1.3	-2.3	-3.5	2.9(-1.7)
설비투자	7.1	0.1	0.7	5.8	-0.6	8.3	6.1	1.1	-2.4	-0.6(4.1)
총 수 출	-1.8	-0.8	-15.9	16.3	5.3	9.7	2.0	-2.0	1.8	4.3(6.1)
총 수 입	-3.3	-2.6	-5.8	5.9	1.5	8.4	2.9	2.8	-0.7	4.3(9.7)

주 1. 2020^p, 2021^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되었고 정부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2.01.25.)」,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1.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1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전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1% 증가함.
- 2021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전기 대비 0.6% 감소함.
- 수출은 반도체,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등이 늘어 4.3%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폭은 확대되었고,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됨.
 -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증가함.
 -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자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1%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0 ^p					2021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농림어업	-4.0	3.4	-8.6	0.0	4.3	2.7	7.5	-12.7	8.9	1.3(3.7)
제조업	-0.9	-0.1	-9.4	7.5	3.1	6.6	3.8	-1.3	0.0	1.1(3.6)
서비스업	-1.0	-2.5	-0.8	1.0	0.6	3.7	0.7	2.1	0.5	1.3(4.8)
(도소매및음식숙박)	-5.7	-5.5	-3.0	1.2	0.0	3.2	1.5	1.6	-0.9	4.2(6.6)
(운수업)	-15.1	-11.3	-7.8	2.9	-2.7	5.2	1.5	9.7	-2.7	2.0(10.6)
(금융 및 보험업)	9.1	2.5	2.7	2.4	2.3	6.1	2.6	-2.7	3.4	0.4(3.7)
(정보통신업)	3.2	3.3	-0.4	-2.6	2.8	6.1	2.2	1.3	2.5	2.7(9.4)
(문화 및 기타)	-18.7	-16.2	-7.3	2.8	-0.6	2.5	-2.3	8.0	-1.5	3.4(7.4)

주 1. 2020^p, 2021^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21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
- 2021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761만 명으로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 산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0.6%, 0.6%, 1.7%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함.
- 2021년 4/4분기 실업자 수는 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8,012 62.5	27,911 62.5	28,075 62.7	28,068 62.6	27,995 62.4	28,310 62.8	27,748 61.7	28,596 63.5	28,451 63.1	28,445 63.0	1.6 1.0
취업자	26,904	26,749	26,849	27,068	26,952	27,273	26,369	27,467	27,645	27,611	2.4
• 농림어업	1,445	1,255	1,534	1,548	1,443	1,458	1,253	1,537	1,572	1,472	2.0
• 광공업 (제조업)	4,389 4,376	4,453 4,438	4,382 4,369	4,357 4,346	4,363 4,351	4,380 4,368	4,423 4,410	4,387 4,375	4,322 4,310	4,387 4,376	0.6 0.6
• 건설업	2,016	1,962	1,969	2,043	2,090	2,090	1,995	2,107	2,134	2,125	1.7
• 도소매·음식숙박업	5,647	5,817	5,641	5,605	5,525	5,451	5,415	5,506	5,461	5,421	-1.9
실업자	1,108	1,162	1,226	1,001	1,043	1,037	1,380	1,129	807	833	-20.1
실업률(계절조정)	4.0	3.7	4.1	3.8	4.3	3.7	4.4	3.7	3.0	3.4	-20.9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22.01.12.)」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1.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1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감소함.
- 2020년 11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준내구재 감소에 따라 전월 대비 1.9% 감소함.
- 2021년 1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및 온라인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0 ^p				2021 ^p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민 간 소 비	-6.6	1.2	0.2	-1.3	1.2	3.6	-0.2			
소 매 판 매	-5.7	5.9	-1.1	0.9	1.7	2.7	0.1	2.4	0.1	-1.9
(내 구 재)1	-4.9	17.6	-4.5	5.1	2.4	-0.3	-4.0	-1.7	2.2	-3.2
(준내구재)2	-15.7	9.4	-2.5	0.1	3.0	9.2	0.9	4.7	2.7	-5.7
(비내구재)3	-2.3	-1.0	1.4	-1.2	0.9	2.2	2.0	3.8	-2.1	0.4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0년, 2021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1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71만 원으로 전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함.
 - 재산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하였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전소득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3.3%, 25.3% 증가하여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였음.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1.01.15.)」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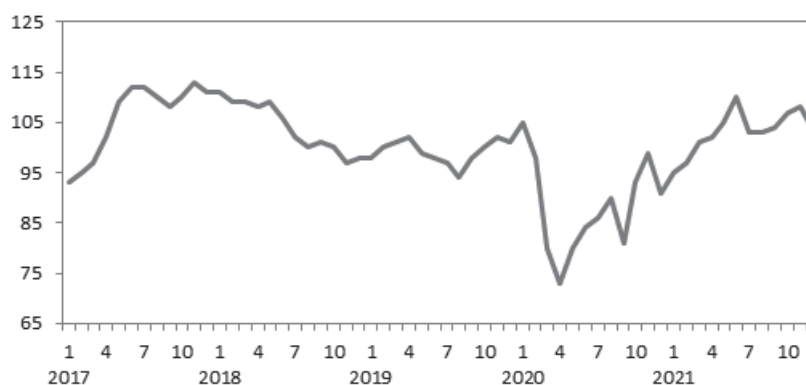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3.7	4.8	1.6	1.8	-0.7	-1.4	7.6
경상소득	2.4	4.3	1.2	1.2	0.1	-1.5	7.7
(근로소득)	1.8	-5.3	-1.1	-0.5	-3.5	4.9	5.7
(사업소득)	2.2	-4.6	-1.0	-5.1	1.6	5.5	3.3
(재산소득)	22.4	-11.7	18.5	7.4	-12.7	58.1	-27.5
(이전소득)	4.7	80.8	17.1	25.1	17.5	-31.4	25.3
비경상소득	79.8	44.4	33.3	49.1	-30.0	6.3	-1.1

자료: 통계청

- 2021년 12월 소비심리지수⁵⁾는 전월(108) 대비 3.7% 감소한 104이지만 전년 동월(91) 대비 14.3% 증가하였음.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1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03.8로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모든 품목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 4.6%, 1.4%, 2.8% 상승하였음.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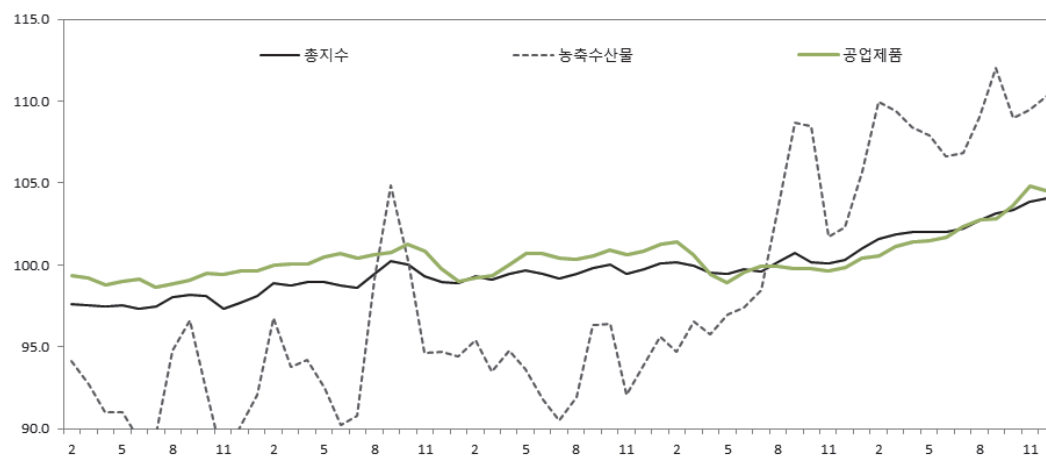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0.0 (0.5)	100.1 (1.0)	99.6 (0.0)	100.2 (0.7)	100.2 (0.5)	102.5 (2.5)	101.5 (1.4)	102.0 (2.5)	102.7 (2.5)	103.8 (3.5)
상 품	100.0 (0.9)	100.3 (1.8)	99.1 (-0.2)	100.1 (1.2)	100.5 (0.7)	103.1 (3.1)	101.9 (1.6)	102.4 (3.3)	103.2 (3.1)	105.0 (4.4)
농축수산물	100.0 (6.7)	95.6 (1.3)	96.7 (3.5)	103.5 (11.4)	104.2 (10.6)	108.7 (8.7)	108.4 (13.3)	107.7 (11.3)	109.3 (5.6)	109.6 (5.2)
공업 제품	100.0 (-0.2)	101.1 (1.9)	99.3 (-1.2)	99.9 (-0.6)	99.8 (-1.0)	102.3 (2.3)	100.7 (-0.4)	101.5 (2.2)	102.6 (2.8)	104.3 (4.6)
전기·수도·가스	100.0 (-1.4)	103.3 (1.4)	103.1 (1.2)	94.3 (-4.2)	99.3 (-4.0)	97.9 (-2.1)	98.2 (-5.0)	98.2 (-4.8)	94.5 (0.3)	100.7 (1.4)
서 비 스	100.0 (0.3)	99.9 (0.3)	99.9 (0.2)	100.3 (0.3)	99.9 (0.2)	102.0 (2.0)	101.1 (1.3)	101.7 (1.8)	102.3 (2.0)	102.7 (2.8)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22.01.14.)」, 통계청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2021. 12.31.)」, 한국은행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22.01.20.)」, 「2021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2.01.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1년 4/4분기 상품,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2.8% 상승함.
 - 농축수산물물은 농·축산물 가격 강세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음.
- 2021년 12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기타 상품·서비스, 주택·수도·전기·연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교육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주류·담배, 교통은 하락하였음. 통신, 의류·신발, 보건의료는 변동 없음.
 - 전년 동월 대비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상품·서비스, 교육, 의류·신발, 오락·문화, 보건의료, 주류·담배는 상승하였으나, 통신은 하락함.
 - 석유류는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1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는 0.3% 상승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였음. 품목별로는 곡물, 과실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 3.6% 상승하였으나, 채소, 기타농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 3.2%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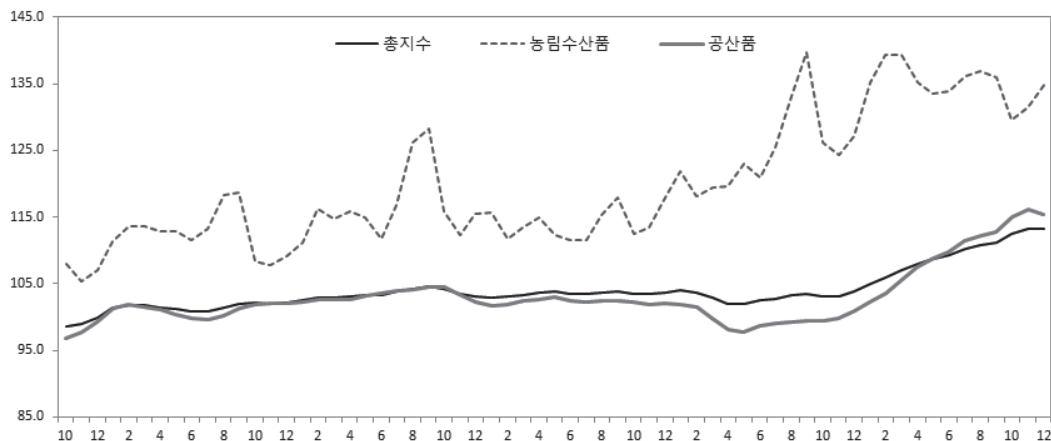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0					2021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0.0	95.6	96.7	103.5	104.2	108.7	108.4	107.7	109.3	109.6	5.2	0.3
농산물	100.0	95.9	93.4	105.0	105.7	108.3	112.0	107.3	107.4	106.7	1.0	-0.6
곡물	100.0	98.5	97.8	98.3	105.5	109.2	109.2	110.0	110.2	107.3	1.7	-2.7
채소	100.0	98.3	88.0	110.1	103.6	104.3	113.8	99.5	101.0	102.8	-0.8	1.7
과실	100.0	92.0	97.2	104.4	106.4	111.3	110.4	112.5	111.8	110.2	3.6	-1.4
기타농산물	100.0	95.7	93.2	98.7	112.4	113.0	115.8	115.4	112.0	108.8	-3.2	-2.9
축산물	100.0	93.4	100.4	103.2	103.2	112.7	105.4	111.0	116.5	117.8	14.2	1.2
수산물	100.0	99.7	100.4	98.7	101.1	101.4	102.2	101.8	100.2	101.6	0.5	1.5

자료: 통계청

- 2021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함.
 - 2021년 12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2.6%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6% 하락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가스, 증기 및 온수가 올라 전월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21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5.8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25.0% 상승함.
- 2021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114.6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0%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15.3% 상승함.
- 2021년 4/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7.0으로 전기 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5.3% 상승함.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7.7로 전월 대비 1.7% 상승함.
- 2021년 4/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5.8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4.6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94.7 (-5.2)	96.8 (-2.8)	94.5 (-6.9)	95.0 (-6.0)	92.6 (-5.2)	108.3 (14.3)	98.3 (1.5)	106.1 (12.3)	113.0 (18.9)	115.8 (25.0)
농림수산물	114.1 (-2.4)	116.6 (-1.7)	115.0 (-2.2)	114.5 (-3.1)	110.1 (-2.6)	119.0 (4.3)	108.7 (-6.8)	112.9 (-1.9)	127.3 (11.2)	127.0 (15.3)
농 산 물	114.2 (-1.5)	115.4 (-1.5)	118.2 (1.3)	115.0 (-2.9)	108.3 (-2.8)	100.9 (-11.7)	105.5 (-8.6)	101.9 (-13.8)	108.4 (-5.7)	87.7 (-19.0)
공 산 품	94.7 (-5.2)	96.7 (-2.8)	94.4 (-6.9)	95.0 (-6.0)	92.6 (-5.2)	108.3 (14.3)	98.3 (1.6)	106.1 (12.3)	112.9 (18.9)	115.8 (25.1)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1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29.2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상승하였고, 전기 대비 5.9% 상승함.
- 2021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27.1로 국제유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9%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29.7%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9%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21.6% 상승함.
 - 2021년 12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3% 하락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1% 하락 및 보합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함.
- 2021년 12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5.3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26.1%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99.9 (-8.7)	105.0 (-2.1)	98.4 (-11.7)	99.3 (-10.2)	96.7 (-10.5)	117.5 (17.6)	105.9 (0.8)	112.8 (14.6)	122.0 (22.8)	129.2 (33.6)
농림수산물	102.7 (0.6)	104.0 (6.8)	103.9 (1.2)	102.3 (-1.5)	100.8 (-3.5)	116.6 (13.5)	106.1 (2.1)	114.0 (9.8)	120.9 (18.3)	125.5 (24.5)
농 산 물	100.2 (1.6)	99.1 (3.9)	98.8 (-1.1)	100.2 (0.0)	102.6 (3.9)	123.6 (23.4)	110.4 (11.4)	118.1 (19.5)	128.5 (28.2)	137.5 (34.0)
축 산 물	102.5 (-2.5)	105.3 (7.4)	103.4 (-3.8)	99.4 (-6.3)	101.9 (-6.4)	119.4 (16.5)	107.5 (2.1)	118.9 (15.0)	124.2 (25.0)	127.1 (24.7)
공 산 품	101.8 (-2.5)	103.8 (1.4)	102.2 (-3.3)	102.2 (-3.4)	99.0 (-4.5)	111.5 (9.5)	104.2 (0.4)	108.5 (6.1)	114.6 (12.1)	118.9 (20.1)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1년 11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 2021년 11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1%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금융채, 수익증권,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경제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등이 증가함.
- 2021년 11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0%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¹⁾	25.6	25.2	26.0	24.5	24.2	22.3	21.3	20.5	20.0	19.7	18.0	17.6
M2 ²⁾	9.8	10.1	10.7	11.0	11.4	11.0	10.9	11.4	12.5	12.8	12.4	12.9
Lf ³⁾	8.4	8.6	8.9	9.3	9.5	9.2	9.4	9.9	10.4	10.6	10.2	10.6
본원통화 ⁴⁾	17.8	16.5	20.2	18.7	17.5	15.7	16.4	15.8	15.2	14.7	16.1	14.9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1년 12월 국고채금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국고채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2월 하순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으로 반등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1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2.01.12.)」과 「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2022.01.13.)」, 「2021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2.01.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 연말 MMF 수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
-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음.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1.0	1.0	1.0	1.1	1.1	1.1	1.3	1.4	1.4	1.5	1.8	2.0	1.8
회사채 ¹	2.2	2.1	2.1	2.1	2.0	1.9	1.9	1.9	1.8	2.0	2.3	2.5	2.4
CD유통수익률(91일)	0.7	0.7	0.7	0.8	0.7	0.7	0.7	0.7	0.8	1.0	1.1	1.2	1.3
콜금리 ²	0.5	0.5	0.5	0.5	0.5	0.5	0.5	0.5	0.6	0.8	0.7	0.8	1.0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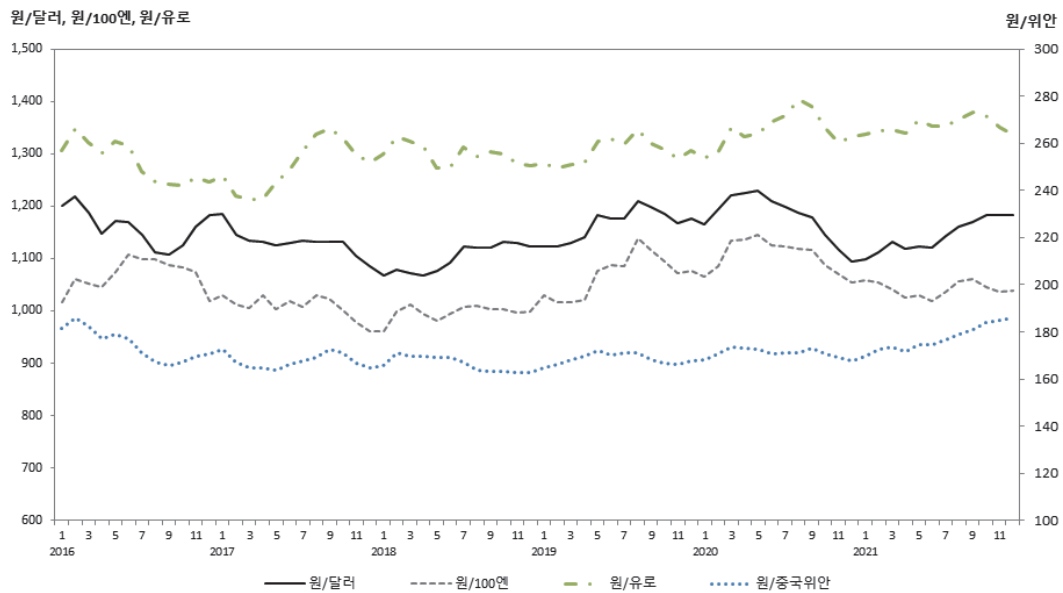
- 2021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6원 상승한 1,183원 임.
 - 2021년 12월 원/달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입목적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 강화, 기업의 선물환 매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등함.
- 2021년 4/4분기 원/위안 환율은 185원으로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원/유로 환율은 각각 1,040원, 1,353원으로 전기 대비 하락하였음.
- 2021년 12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 수준임.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80	1,194	1,221	1,189	1,118	1,144	1,114	1,121	1,157	1,183	1,183	1,183	1,184
원/100엔	1,105	1,096	1,135	1,119	1,070	1,041	1,051	1,024	1,051	1,040	1,045	1,036	1,040
원/유로	1,346	1,317	1,345	1,388	1,333	1,353	1,343	1,351	1,365	1,353	1,372	1,350	1,338
원/위안	171	171	172	172	169	177	172	174	179	185	184	185	186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세 심화, 물가 상승폭 확대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됨.
- 중국경제는 고강도 방역조치, 부동산 산업 위축 등으로 소비·투자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나,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12월 PMI는 소폭 개선됨.
- 일본 경제는 소매판매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공급 차질이 완화되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함.
- 유로존 경제는 11월 소비·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가 반등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경제 심리는 2개월 연속 둔화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3.4	-5.1	-31.2	33.8	4.5	6.3	6.7	2.3		
	산업생산(전기비)	-7.2	-1.7	-12.9	9.6	2.0	1.0	1.6	0.9	1.7	0.5
	소매판매(전기비)	0.5	-2.2	-7.4	14.1	0.3	8.2	6.5	-0.5	1.8	0.3
	실업률(계절조정)	8.1	3.8	13.1	8.8	6.8	6.2	5.9	5.1	4.6	4.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2.1	0.4	1.2	1.2	1.9	4.8	5.3	6.2	6.8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2.2	-6.8	3.2	4.9	6.5	18.3	7.9	4.9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8	-8.4	4.4	5.8	7.1	24.5	9.0	4.9	3.5	3.8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9	-19.0	-4.0	0.9	4.6	33.9	14.1	5.1	4.9	3.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5	5.0	2.7	2.3	0.1	0.0	1.1	0.8	1.5	2.3
일본	실질GDP(전기비)	-4.5	-0.6	-7.9	5.1	2.3	-0.7	0.5	-0.9		
	산업생산(전기비)	-10.3	0.0	-16.8	9.0	5.7	2.8	1.2	-3.7	1.8	7.2
	소매판매(전기비)	-3.3	1.2	-7.0	8.2	0.1	0.4	-2.1	1.2	1.0	1.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7	0.1	0.0	-0.9	-0.5	-0.7	-0.2	0.1	0.6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6.4	-3.5	-11.7	12.6	-0.4	-0.2	2.2	2.2		
	산업생산(전기비)	-7.9	-3.1	-15.8	15.7	5.4	1.3	-0.2	-0.8	-1.3	2.3
	소매판매(전기비)	-0.9	-2.4	-5.0	10.5	-1.2	-1.1	3.9	0.9	0.3	1.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1.1	0.2	0.0	-0.3	1.1	1.8	2.8	4.1	4.9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1.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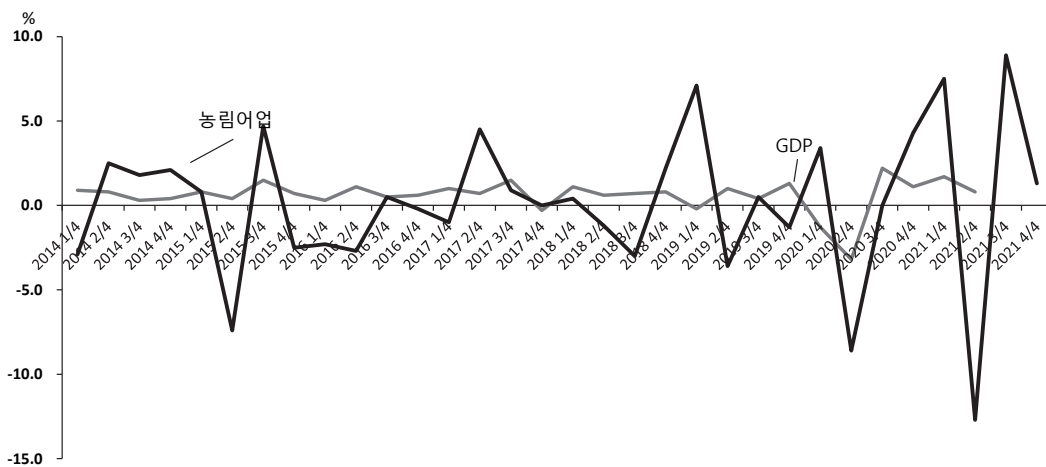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1년 4/4분기 8조 3,6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3% 증가함.
 - 202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83조 7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전기 대비 1.1%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9년 3/4분기, 4/4분기, 2020년, 2021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1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4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축산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9.6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기 대비 1.3% 상승함.
 - 미곡과 잡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7.7% 상승한 반면, 멍쌀은 1.1% 하락함.
 - 맥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보리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4%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함.
 - 두류/잡곡의 경우 옥수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8% 하락하였으나 콩과 팥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11.4%, 50.8%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함.
 -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고구마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7%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9% 하락함.
- 채소 판매가격지수는 125.7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전기 대비 3.9% 하락함.
 -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배추, 양배추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시금치, 상추, 미나리, 부추, 깻잎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근채류의 경우 무, 당근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6.0% 하락함.
 -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마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다른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3% 하락함.
 -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참외, 딸기, 방울토마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지만, 오이, 호박, 수박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8.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18.2% 하락함.
 - 사과와 배, 매실을 제외한 과수 품목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배, 포도, 감귤, 단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5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4.5% 하락함.
 - 전년 동기 대비 한우 송아지와 젖소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다른 품목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육계, 오리, 계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2%, 53.9%, 31.1%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1	117.0	117.5	119.9	126.2	122.4	2.1	-3.0
곡물	280.1	122.4	127.5	120.8	129.7	127.9	129.6	-0.1	1.3
-미국	234.3	122.8	129.0	120.7	129.2	138.1	130.7	1.2	-5.4
-맥류	5.5	96.4	104.7	85.8	91.4	79.4	93.8	2.6	18.1
-두류/잡곡	23.9	147.3	137.1	143.4	150.1	110.0	160.6	7.0	46.0
-서류	16.4	93.4	110.9	103.7	120.8	95.9	90.7	-24.9	-5.4
청과물	406.5	117.0	133.6	138.9	136.8	140.6	126.7	-7.4	-9.9
-채소	268.9	101.6	118.6	136.1	142.5	130.8	125.7	-11.8	-3.9
-과수	137.6	142.5	158.5	143.4	127.4	156.9	128.3	0.7	-18.2
축산물	252.6	97.4	101.8	103.8	103.7	120.9	115.5	11.4	-4.5
-가축	185.1	101.0	105.5	109.5	107.0	120.6	117.7	10.0	-2.4
-기타	67.5	91.0	95.3	93.7	97.8	121.4	111.7	14.2	-8.0
기타농산물	60.8	102.3	102.2	97.6	109.6	99.9	120.8	10.2	20.9
-특용작물	42.4	98.3	97.5	95.8	103.5	103.9	112.7	8.9	8.5
-화훼	15.3	108.7	109.6	99.9	119.8	93.2	135.5	13.1	45.4
-부산물	3.0	103.5	106.0	105.5	107.5	100.8	105.5	-1.9	4.7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1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3.7로 전년 동기 대비 6.9%, 전기 대비 1.1%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15.4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전기 대비 1.5% 상승함.
 -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0%, 1.6%, 16.5%, 19.3% 상승함.
- 노무비와 경비, 자산구입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40.9, 112.2, 116.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12.1%, 2.8% 상승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1년 4/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17.8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전년대비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4.1	106.1	106.6	106.4	112.5	113.7	6.9	1.1
가계용품	484.8	104.9	106.1	106.4	106.5	109.2	110.1	3.4	0.8
재료비	250.6	95.6	101.8	102.9	102.9	113.7	115.4	12.1	1.5
-종자종묘	27.5	112.6	115.9	118.7	118.6	117.8	117.6	-0.8	-0.2
-비료비	39.0	72.6	77.9	77.9	77.9	88.8	88.8	14.0	0.0
-농약비	29.3	96.8	118.9	118.9	118.9	120.8	120.8	1.6	0.0
-사료비	136.0	98.2	102.1	103.4	103.4	117.3	120.5	16.5	2.7
-영농자재비	18.7	97.7	102.6	102.6	102.6	122.4	122.4	19.3	0.0
노무비	45.0	119.6	124.2	124.7	128.1	138.3	140.9	10.0	1.9
경비	129.0	106.6	103.3	102.9	100.1	108.3	112.2	12.1	3.6
-영농광열비	32.6	107.7	87.1	84.2	80.3	111.3	127.0	58.2	14.1
-임차료	40.5	109.8	112.4	112.1	114.1	114.8	114.6	0.4	-0.2
-농작업위탁비	42.5	105.5	108.5	110.3	103.1	103.6	103.3	0.2	-0.3
-판매자재비	13.3	97.6	98.0	97.4	96.5	96.5	96.5	0.0	0.0
자산구입비	90.6	112.4	113.2	114.0	113.6	120.3	116.8	2.8	-2.9
-기계구입	58.9	104.6	104.3	104.7	103.9	104.8	105.0	1.1	0.2
-가축구입비	31.7	126.9	129.6	131.4	131.6	149.0	138.6	5.3	-7.0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1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7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기 대비 4.0%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6.9% 상승했기 때문임.

농가교역 및 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0	2020	2021	2021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7.5	119.9	126.2	122.4	2.1	-3.0
농가구입가격(B)	106.6	106.4	112.5	113.7	6.9	1.1
농업투입재가격(C)	104.1	104.0	115.0	117.8	13.2	2.4
농가교역조건(A/B×100)	110.2	112.7	112.2	107.7	-4.5	-4.0
농가경영조건(A/C×100)	112.9	115.2	109.7	103.9	-9.8	-5.3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1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6.4% 감소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전기 대비 4.3%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91만 명, 여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56만 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77만 2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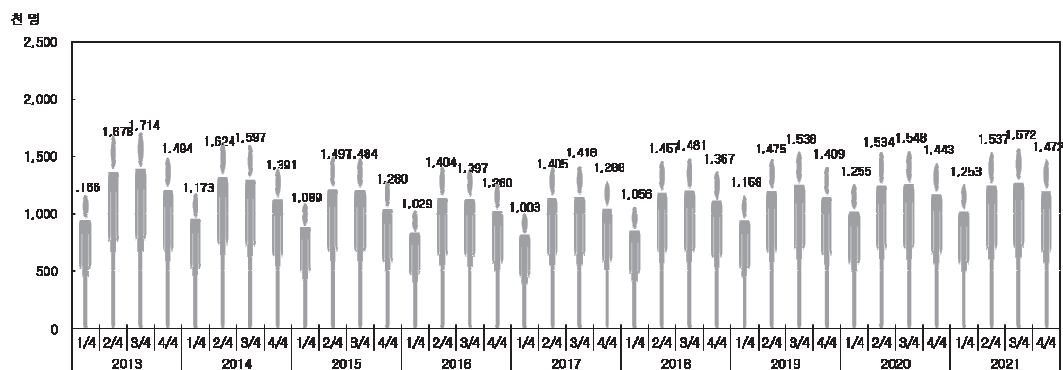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20	2021		증감률(%)	
		4/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6,952	27,645	27,611	2.4	-0.1
	(계절조정)	(26,857)	(27,401)	(27,513)	2.4	0.4
	농림어업	1,443	1,572	1,472	2.0	-6.4
	(계절조정)	(1,466)	(1,434)	(1,495)	2.0	4.3
	남성	879	949	910	3.5	-4.1
	여성	564	623	561	-0.5	-10.0
	농가	1,732	1,884	1,772	2.3	-5.9
	농가남성	983	1,061	1,024	4.2	-3.5
	농가여성	749	823	748	-0.1	-9.1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2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함.
 - 채소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하였으나 곡류와 과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9%, 2.8%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8.7% 증가함.
 - 축산물 수출량은 포유육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 수출량이 4.2%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전기 대비 7.3% 감소함.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3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일류, 채소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9%, 16.8%, 0.4%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5%, 20.9%, 19.9%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함.
- 2021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9,34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1.9%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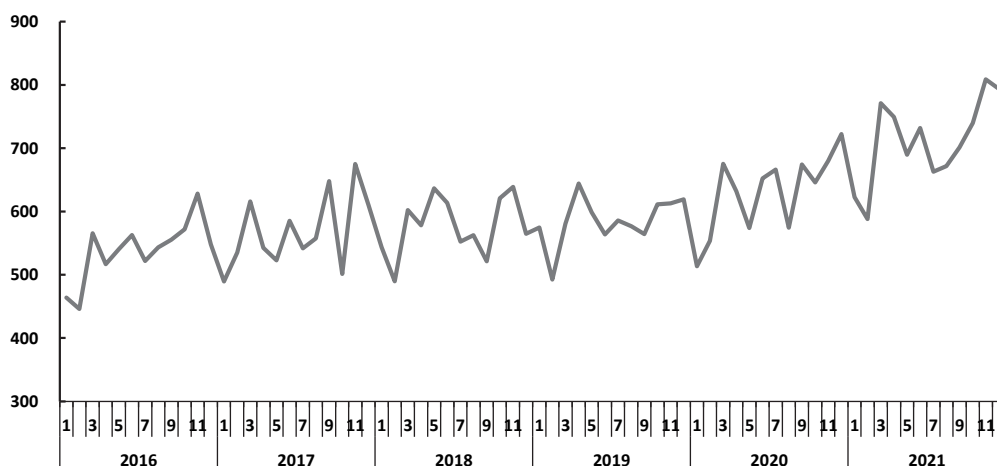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4		4/4		3/4		4/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73	1,915	984	2,048	966	2,036	1,028	2,342	4.5	14.3
	농산물	798	1,692	779	1,818	778	1,788	847	2,070	8.7	13.9
	-곡류	11	8	13	10	11	9	15	12	21.9	27.9
	-과실류	32	88	50	140	30	94	51	163	2.8	16.8
	-채소류	33	105	38	122	38	102	36	122	-5.8	0.4
	축산물	52	126	50	131	47	137	51	156	2.0	18.8
	-포유육류	1	6	1	7	2	10	2	10	54.5	41.5
	-가금육류	14	18	15	19	10	16	14	24	-4.2	20.9
	-낙농품	9	37	10	42	9	38	10	50	9.8	19.9
	임산물	123	97	155	99	140	112	130	116	-16.2	16.8
수 산 물		133	558	166	653	210	710	261	861	57.3	31.9
전 체		1,106	2,473	1,150	2,701	1,176	2,746	1,289	3,203	12.1	18.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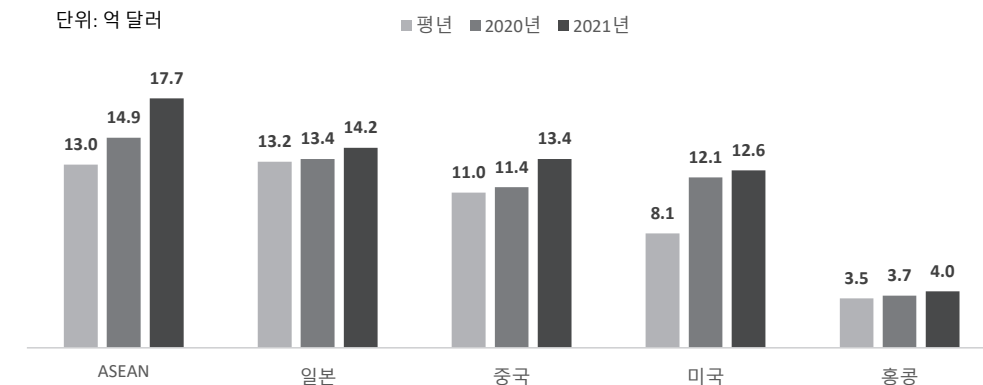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1년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85억 3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5.3% 증가한 54억 2천만 달러임.
 - 5대 농식품 수출국인 ASEAN, 일본, 중국, 미국, 홍콩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그중 對 ASEAN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 2021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6.0으로 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세부 항목별로는 수출계약(113.2), 수출상담(111.8), 수출대상국 경기(109.5) 등은 개선되나 수출상품 제조원가(79.0), 수출채산성(87.8), 수출 단가(90.6)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²⁾
 -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4.3%)과 물류비용 상승(24.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1년 4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1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1.09.30).

4.2. 수입 동향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83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2.1% 증가하였으나, 임산물 수입량은 1.2% 감소함.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1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5%, 33.8%, 27.0%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액은 밀, 옥수수 등의 수입액이 많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함.
 - 과실류 수입액은 키위,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레몬 등 수입액 비중이 큰 과일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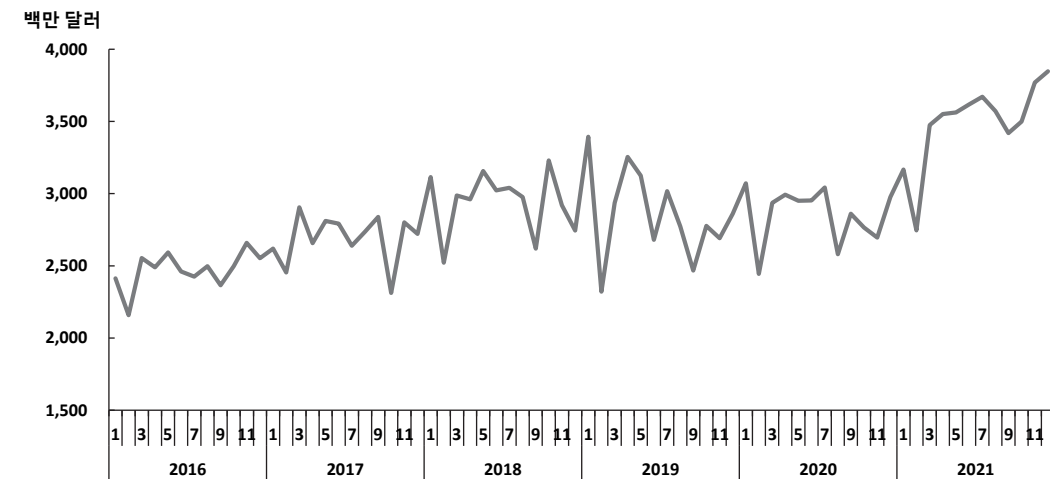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3/4		4/4		3/4		4/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957	8,485	13,339	8,439	13,336	10,663	13,836	11,119	3.7	31.8
	농 산 물	8,788	5,058	8,734	5,111	8,882	6,280	9,232	6,771	5.7	32.5
	-곡류	4,046	955	3,980	888	3,965	1,306	4,449	1,486	11.8	67.2
	-과실류	260	434	267	403	270	476	252	435	-5.8	8.1
	-채소류	302	257	343	278	269	256	300	301	-12.4	8.5
	축 산 물	431	2,006	402	1,801	457	2,443	451	2,409	12.1	33.8
	-포유육류	239	1,214	213	1,075	245	1,535	239	1,509	12.1	40.3
	-가금육류	44	103	47	107	44	105	44	108	-6.5	1.2
	-낙농품	95	323	77	275	97	350	94	357	22.0	29.7
	임 산 물	3,739	1,421	4,203	1,527	3,996	1,941	4,154	1,940	-1.2	27.0
수 산 물		1,438	1,374	1,408	1,545	1,539	1,404	1,935	1,849	37.4	19.6
전 체		14,396	9,860	14,746	9,984	14,874	12,067	15,771	12,967	7.0	29.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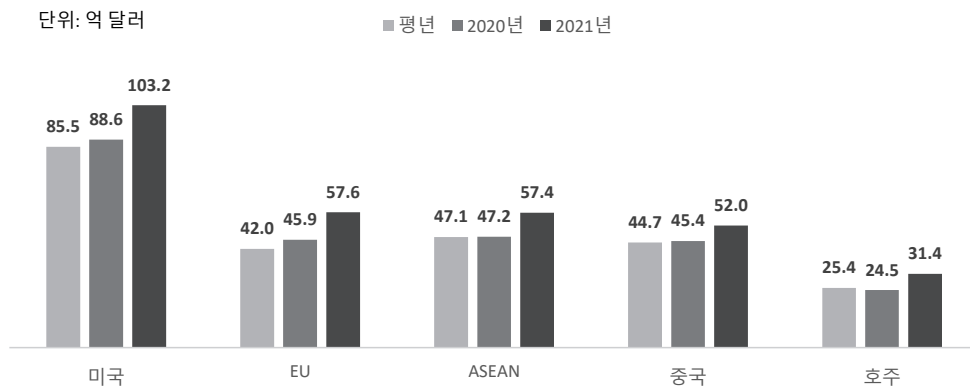
- 2021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8억 4,87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3%, 전월 대비 2.1%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1년 4분기」.

- 2021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419억 달러, FTA 체결국 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350억 7천만 달러임.
 - 5대 농식품 수입국인 미국, EU, ASEAN, 중국,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16.4%, 25.4%, 21.5%, 14.4%, 28.3% 증가함.

4.3. 순수입 동향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80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38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0만 톤임.
- 2021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87억 7,7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7%, 34.9%,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년 4/4분기		2021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355	6,391	12,809	8,777	3.7	37.3
농 산 물	7,954	3,293	8,385	4,700	5.4	42.7
축 산 물	353	1,669	400	2,252	13.5	34.9
임 산 물	4,048	1,428	4,024	1,824	-0.6	27.7
수 산 물	1,242	893	1,674	988	34.8	10.6
전 체	13,596	7,283	14,483	9,764	6.5	34.1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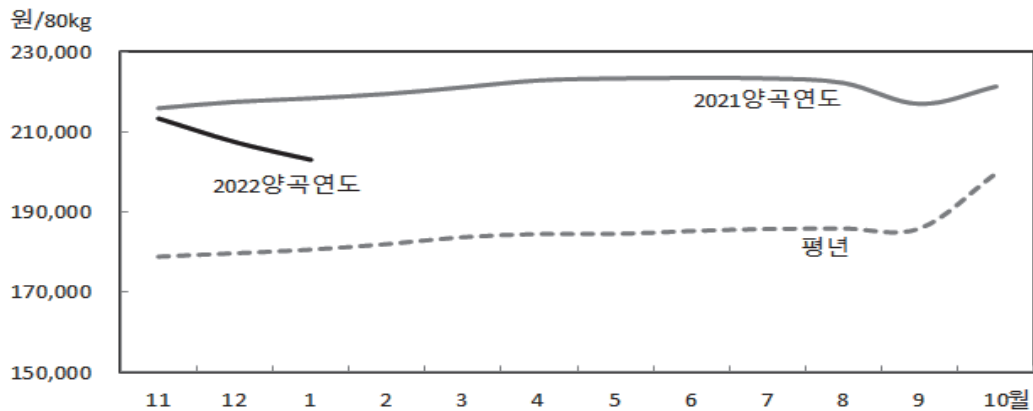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7~2021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1년 4분기 동향

- 2021년 4분기 산지 쌀 가격은 21만 4,138원/80kg(53,535원/20kg 기준)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1% 하락
- 이는 '21년산 생산 증가로 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다만, 큰 폭의 생산 증가(전년 대비 10.7%)에도 수확기 초기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비 가격 하락폭은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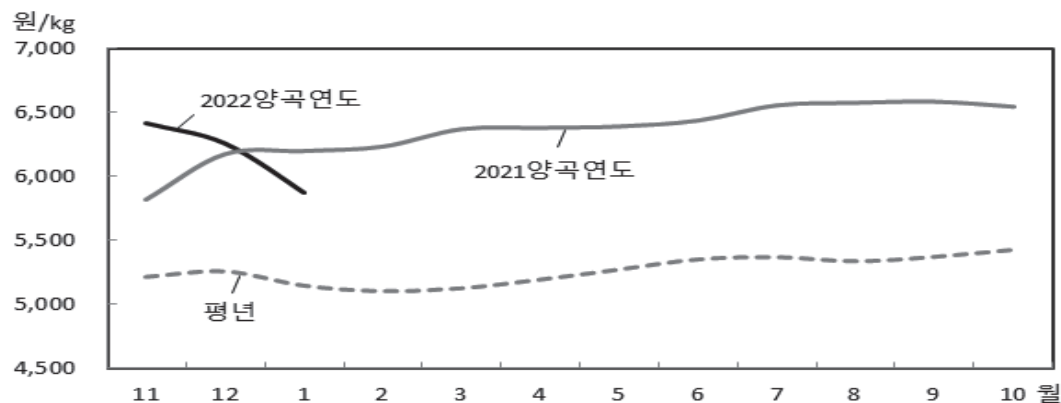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20만 3,260원/80kg으로 전년 대비 7.0% 하락
- 1분기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됨. 이는 정부 시장격리에도 격리규모(20만 톤)가 과잉물량(27만 톤)보다 적고 산지 재고도 전년보다 많기 때문임.

※ 산지유통업체 재고(1.20.기준) 전년 대비 59.4% 증가(53만 9천 톤)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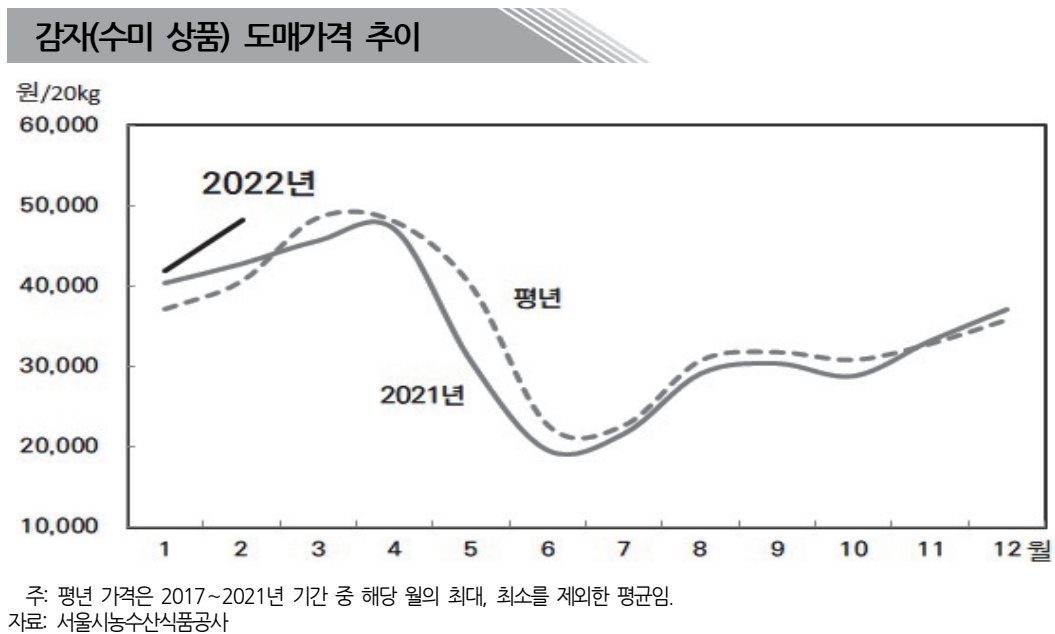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7~2021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2021년 4분기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6,408원/kg으로 전 분기 보다 2.5%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
- '21년산 생산 증가(전년 대비 36.9%)에도 '20년산 계절진폭이 4분기 가격을 전년보다 높게 형성시킴. 다만, 월별 가격은 하락세 유지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5,871원/kg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5.3% 하락
 - 1분기 가격은 '21년산 콩 시장공급물량이 28%내외 증가가 예상되어 전 분기 대비 하락세 지속 전망

1.3. 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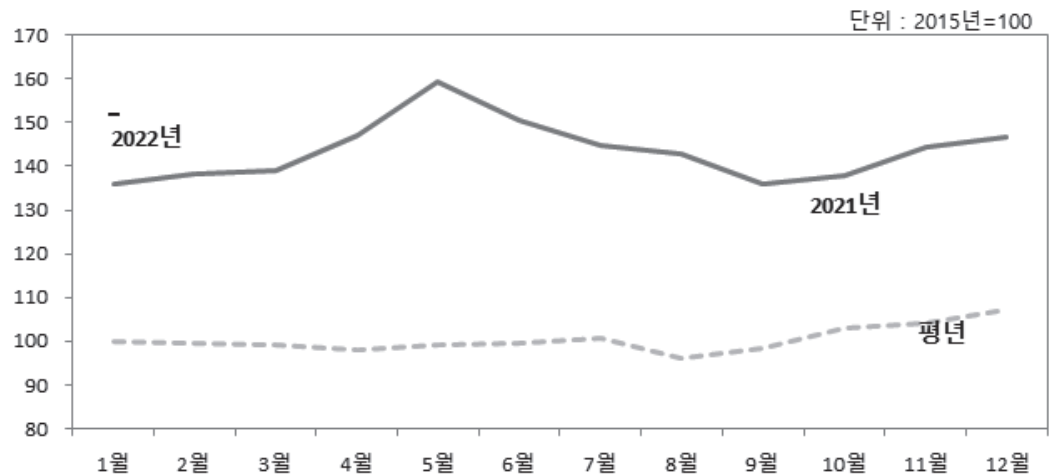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2021년 4분기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3,053원/20kg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22.3%, 15.3% 상승
 - 이는 가을감자 생산량이 감소했고, 저장품감자 출하량도 산지 시세관망 영향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임.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감자 출하량 감소로 전 분기 및 전년 동월 대비 높은 42,004원/20kg
 - 1분기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은 저장 감자량 증가에도 가을감자 생산 감소와 경남 지역 시설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전망
 - ※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3% 늘겠으나, 파종기 기상여건 악화로 초기 작황 부진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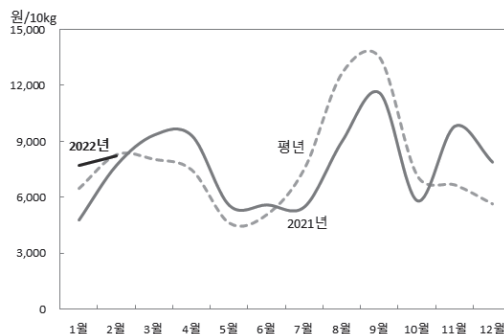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5~2019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1년 4/4분기 동향
 - 2021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1.2% 상승한 142.9임.
 - 밀 공급 부족 우려, 주요 곡물 주산지 건조한 날씨 영향 등이 4/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2022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남미의 건조한 기후로 옥수수, 콩 생산량 감소 우려로 2022년 1/4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6% 상승한 143.8로 전망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갈등, 라니냐로 인한 남미 이상기상 발생으로 수확 및 파종 지연 등 불확실성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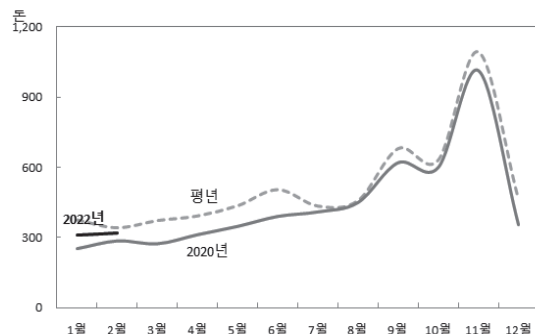
2. 엽근채소2)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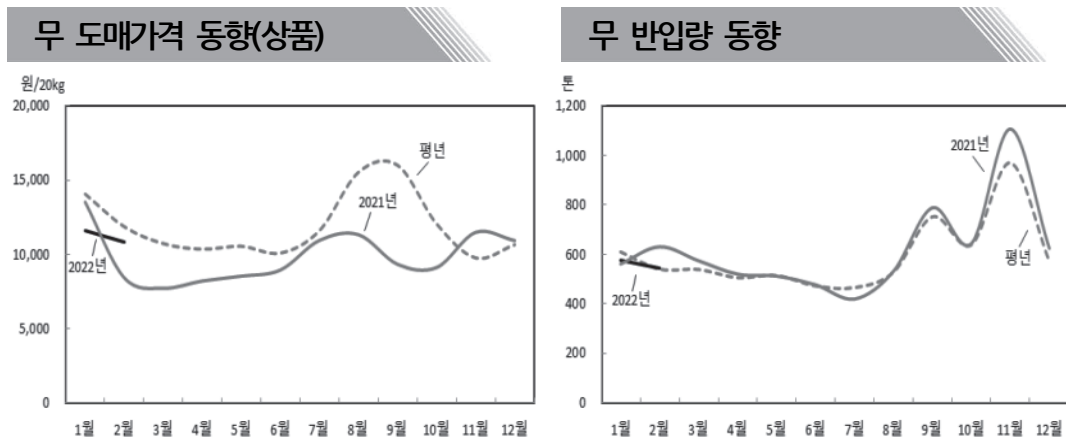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7,85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7%, 20.8% 상승)
 - 가을 및 겨울배추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 * 2021년 가격: (10월) 5,820원/10kg, (11월) 9,820원, (12월) 7,900원
 - * 4분기 가격: (2021년) 7,850원/10kg, (2020년) 6,390원, (평년) 6,500원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28만 3천 톤 (전년 대비 1.1% 증가, 평년 대비 4.2% 감소)
 - * 재배면적 3,69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5%, 7.5% 감소)
 - * 단수 7,67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7%, 3.6% 증가)
 - * 기상 여건 양호하여 단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1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1%, 3.0% 감소
- 1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7,290/10kg) 및 평년(7,610원) 대비 상승
- 2022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2년 시설봄배추 재배의향 전년(497ha) 및 평년(483ha) 대비 감소 전망
 - * 전년 출하기 가격 낮아 재배의향 전년 대비 감소
 - 노지봄배추 재배의향(1월 중순 조사 기준)면적 전년 대비 1.5% 감소, 평년 대비 2.9% 증가 전망
 - * 전년 대비 재배의향 감소하나, 고랭지철 대비 저장 수요로 평년보다 증가

2.2. 무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0,52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1%, 2.5% 하락)
 - 가을무 출하량 증가로 가격 전년 및 평년 대비 하락
 - * 2021년 가격: (10월) 9,130원/20kg, (11월) 11,490원, (12월) 10,940원

* 4분기 가격: (2021년) 10,520원/20kg, (2020년) 12,250원, (평년) 10,790원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월동무 생산량 37만 2천 톤(전년 대비 11.2% 감소, 평년 대비 4.1% 증가)

* 재배면적 5,50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8%, 10.6% 감소)

* 단수 6,755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 16.4% 증가)

* 1월 출하량 파종 및 생육 초기 태풍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다소 부진하였으나, 2월 이후 출하량은 출하 여건 호전으로 평년 대비 양호

- 1분기 무 출하량 전년 대비 3.8% 감소, 평년 대비 5.3% 증가
- 1분기 무 도매가격 전년(9,900원/20kg) 대비 상승, 평년(12,190원) 대비 하락

• 2022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 2022년 시설봄무 재배의향면적 161ha(전년 및 평년 대비 6.7%, 15.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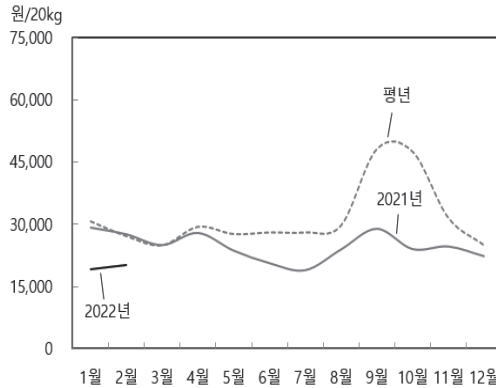
* 2021년산 겨울무 출하량 증가로 출하기 가격 하락 예측되어 재배의향 감소

- 2022년 노지봄무 재배의향면적 758ha(전년 및 평년 대비 4.2%, 1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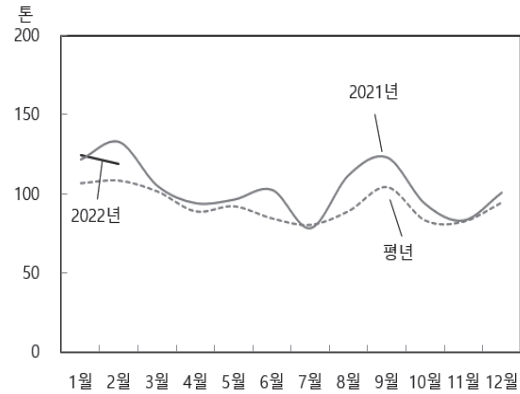
* 전년도 출하기(6~7월) 가격 낮아 재배의향 감소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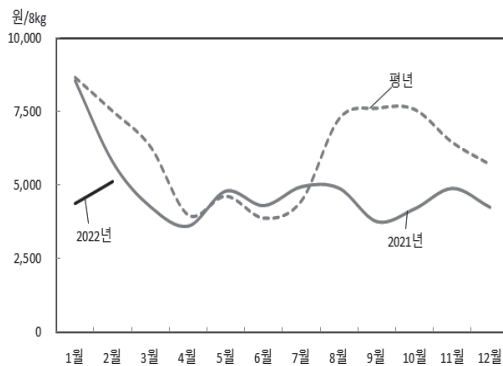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23,70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9%, 5.4% 하락)
 - 생산량 증가한 겨울당근 본격 출하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 2021년 가격: (10월) 24,050원/20kg, (11월) 24,680원, (12월) 22,360원
 - * 4분기 가격: (2021년) 23,700원/20kg, (2020년) 34,800원, (평년) 25,040원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5만 6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1%, 16.5% 증가)
 - * 재배면적 1,44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7%, 7.3% 증가)
 - * 단수 3,901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9%, 8.5% 증가)
 - 1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1%, 16.2% 증가
 - 1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27,270원/20kg) 및 평년(27,510원)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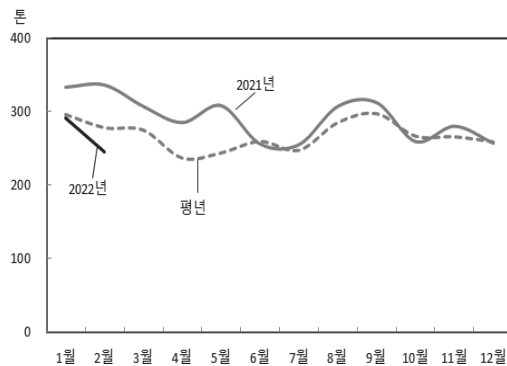
- 2022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 2022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973ha (전년 대비 2.9% 감소, 평년 대비 7.1% 증가)
 - 재배형태별로 시설은 전년 대비 2.1%, 감소, 평년 대비 7.9% 증가한 809ha
 - 노지는 전년 대비 6.5% 감소, 평년 대비 3.1% 증가한 164ha
 - * 대체작목(양배추, 수박 등) 재배 선호 낮아 재배의향 평년 대비 증가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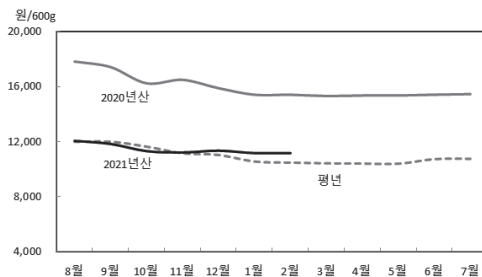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4,44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4.7%, 44.7% 하락)
 - 충청지역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 2021년 가격: (10월) 4,180원/8kg, (11월) 4,880원, (12월) 4,240원
 - * 4분기 가격: (2021년) 4,440원/8kg, (2020년) 9,800원, (평년) 8,030원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17만 8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8%, 18.9% 증가)
 - * 재배면적 2,98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7%, 2.2% 증가)
 - * 단수 5,967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1%, 16.4% 증가)
 - 1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0%, 14.2% 증가
 - 1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6,200원/8kg) 및 평년(7,510원) 대비 하락
- 2022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2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1,353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4%, 13.5% 감소)
 - 작형별로 시설은 전년 대비 7.1%, 노지는 3.1% 감소
 - *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에 따른 출하기(4~5월) 가격 약세 우려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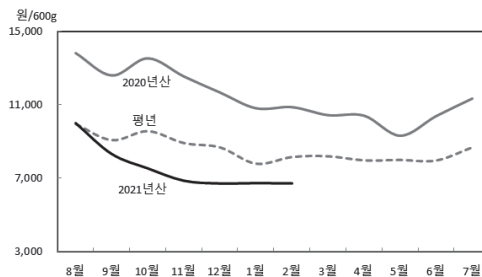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5년 8월~2020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건고추 도매 및 산지 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2021년산 생산량 많아 전년 대비 각각 30%, 44% 하락

* 2021년산 도매가격(원/600g): (21년 3분기) 13,097 → (21년 4분기) 11,279

산지가격(원/600g): (21년 3분기) 9,879 → (21년 4분기) 7,018

* 4분기 도매가격(원/600g): (금년) 11,279 (전년) 16,209 (평년) 11,259

산지가격(원/600g): (금년) 7,018 (전년) 12,596 (평년) 9,050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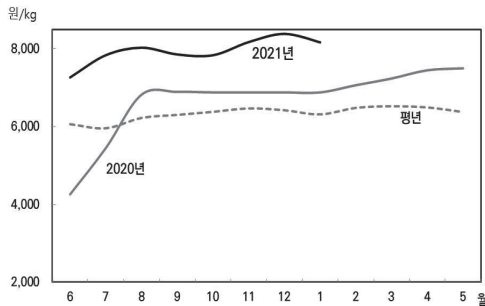
- 1월 건고추 도매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4분기 대비 28% 하락한 11,160 원/kg, 산지가격 38% 하락한 6,710원/kg
- 1분기 건고추 가격은 1월과 비슷하며, 전년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전망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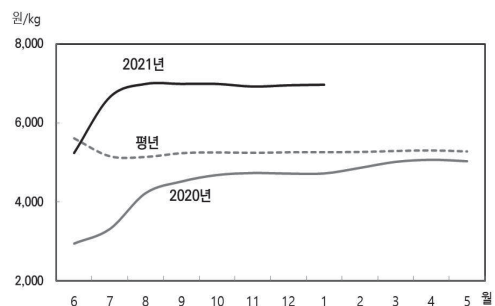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 가격 하락 및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 대비 8% 감소한 30,637ha 전망
 - 재배면적이 큰 영남 및 호남지역 중심으로 감소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6년 6월~2021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1년 4/4분기 동향
 - 간마늘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8.2% 상승
 -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8,135원/kg, (전년) 6,883원, (평년) 6,426원
- 2022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1월 간마늘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강세 지속
 - * 1월 도매가격: (금년) 8,170원/kg, (전년) 6,883원, (평년) 6,318원
 - 2022년 1/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21년산 공급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

- 2021년 12월 말 기준, 마늘 재고량은 약 4만 5천 톤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은 9만 6천 톤 내외
 - 저장·가공업체 표본조사 결과, 12월 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적은 수준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1	96,419	45,630	45,305
2020	106,175	50,953	49,589
평년	107,000	45,135	57,266
전년 대비	-9.2	-10.4	-8.6
평년 대비	-9.9	1.1	-20.9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1년산 10.8%, 2020년산 10.2%, 평년 7.4%)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12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가
 -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3,686ha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2.7% 감소, 난지형은 1.5% 증가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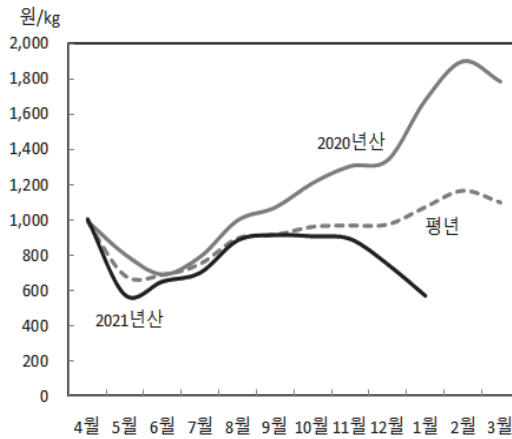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2	4,628	19,058	23,686
2021	4,757	18,771	23,528
평년	5,196	20,779	25,975
전년 대비	-2.7	1.5	0.7
평년 대비	-10.9	-8.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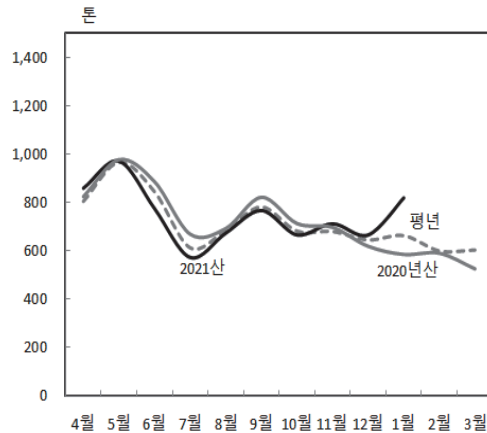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6년 4월~2021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4.0%, 12.4% 낮은 상품 kg당 849원
 - * 월별 도매가격: (10월) 907원/kg, (11월) 892원/kg, (12월) 747원/kg
- 2021년산 양파 저장 동향
 - 2021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6.9% 많은 71만 9천 톤 내외로 추정
 - 12월 말 기준 출고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0만 5천 톤 내외로 추정
 - 부패율을 감안한 12월 말 기준 재고량은 26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많은 것으로 추정

2021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12월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1	718,793	405,345	268,663
2020	672,160	391,586	237,251
평년	658,822	385,345	235,691
전년 대비	6.9	3.5	13.2
평년 대비	9.1	5.2	14.0

주 1) 2021년산은 정부수매물량이 포함된 수치임.
 2)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1년 9.6%, 2020년산 12.4%, 평년 10.9%)을 적용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569원으로 전년(1,680원) 대비 하락
 - 2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저장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고, 전월 보다 소폭 높을 전망
-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 2021년 대비 감소
 -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17,521ha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2% 증가, 중만생종은 6.7% 감소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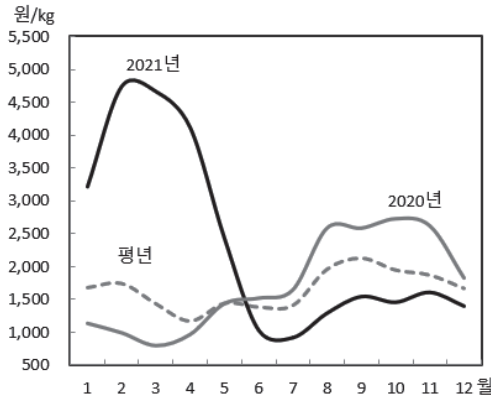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2	2,975	14,546	17,521
2021	2,939	15,593	18,532
평년	2,863	17,086	19,949
전년 대비	1.2	-6.7	-5.5
평년 대비	3.9	-14.9	-12.2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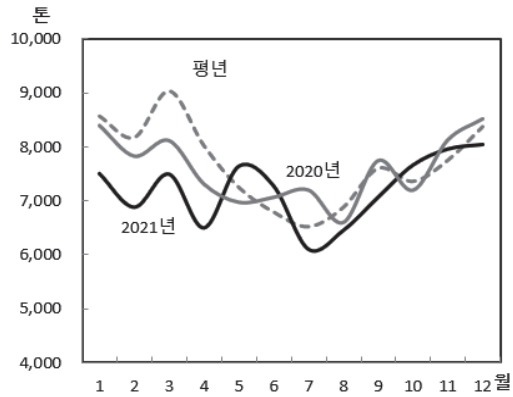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자료는 2016년 1월~2020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반입량 동향



- 2021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484원/kg(중품 1,212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38%, 18% 하락
 - * (금년) 1,484, (전년) 2,389원, (평년) 1,818원
 - * (10월) 1,454원/kg → (11월) 1,604원 → (12월) 1,395원
 - 10~12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보다 3.6% 증가
 - 4/4분기 가격은 금년 강원, 경기지역 폭염 피해가 적고 생육기 기상호조로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하락
- 2022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겨울 기상이 좋아 작황 양호하여 전년(2,760원/kg)보다 낮은 1,316원/kg
 - 2021년산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 4.8% 증가

-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이 양호하여 2021년산 겨울대파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겨울대파 가격 약세로 출하의향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빠른 것으로 조사

전라남도 겨울대파 출하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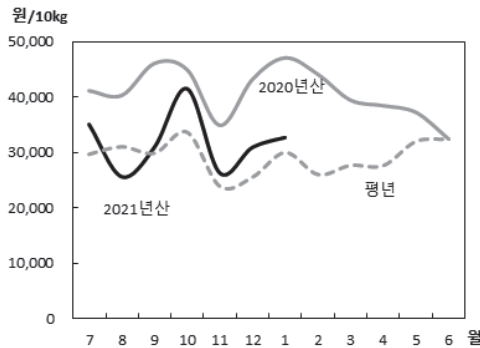
전년보다 빠름	전년과 비슷	전년보다 느림
28.9%	44.4%	26.7%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22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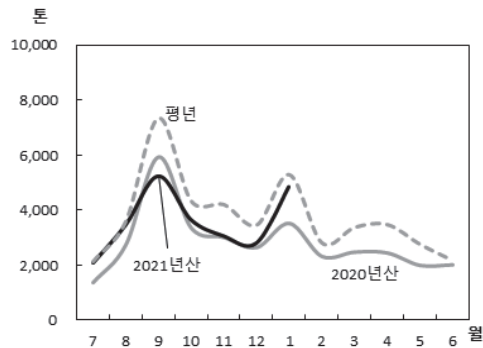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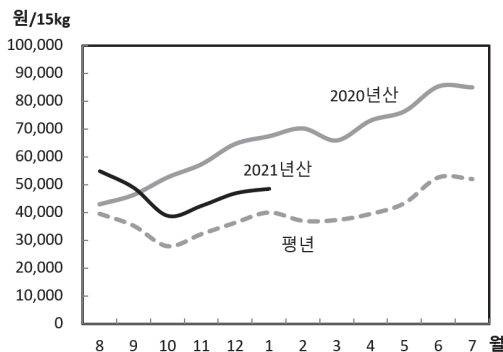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10월 양광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 하락한 41,600원/10kg이었음.
 - 11~12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7% 하락한 28,700원이었음. 이는 후지 생산량 증가로 저장량이 많아 반입량이 전년 대비 4%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30% 하락한 32,800원/10kg이었음.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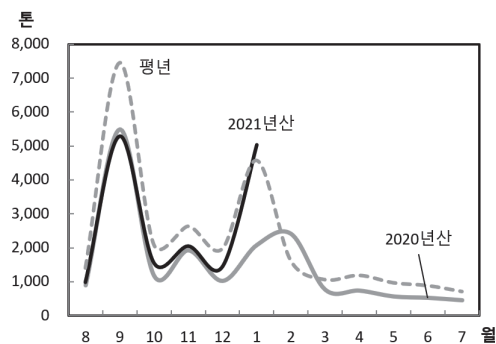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1.17.~1.30.)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7% 하락한 28,900원/5kg이었음.
- 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후지 저장량이 많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유목면적은 품종 전환이 활발하여 전년 대비 3%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는 후지와 홍로가 전년 대비 각각 1%, 3% 감소하는 반면, 감홍과 기타품종은 각각 10%,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타품종인 아리수와 시나노골드는 신품종 사과로 생산량이 많지 않으나, 가격이 높아 최근 식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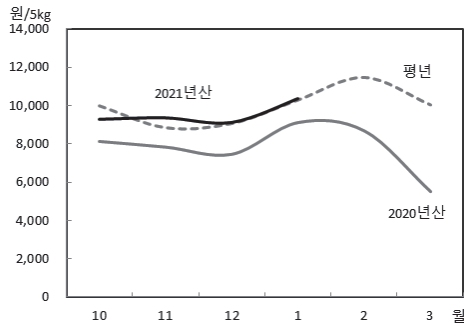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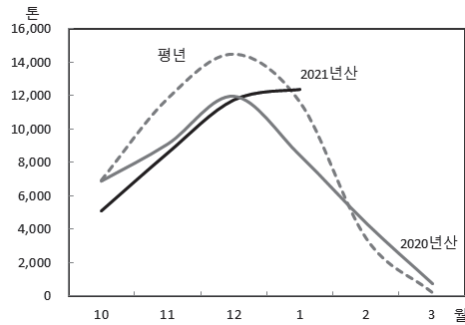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신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 낮은 42,700원/15kg이었음. 이는 기상이 양호하여 착과수가 증가하고, 전년 대비 과 비대가 원활하여 대과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28% 하락한 48,500원/15kg이었음.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1.17.~1.30.) 신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8% 하락한 32,100원/7.5kg이었음.
 - 2~3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9,323ha로 전망됨. 도시 개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목면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과 신화·창조·그린시스 등의 신규 식재가 늘어나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다.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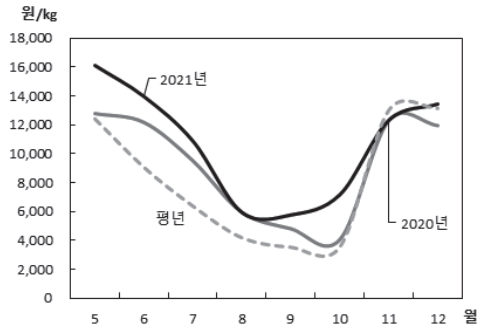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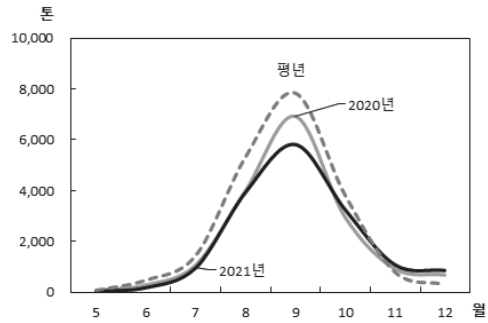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18% 상승한 9,200원/5kg이었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설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4% 상승한 10,400원/5kg이었음.
 - 2월 이후 노지온주 가격은 설 성수기 물량 소진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만 9,842ha로 전망됨. 품종별로 노지온주와 월동온주는 수익성 저하로 전년 대비 각각 1%, 2% 감소하나, 하우스온주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만감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한라봉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하는 반면, 천혜향·레드향은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각각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2016~18년은 5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원/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1년 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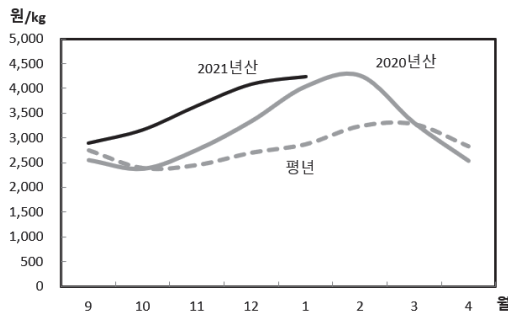
- 10~11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97% 상승한 22,800원/3kg이었음.
- 10~12월 샤인머스켓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 선호가 높아 전년 대비 1% 상승한 24,000원/2kg이었음.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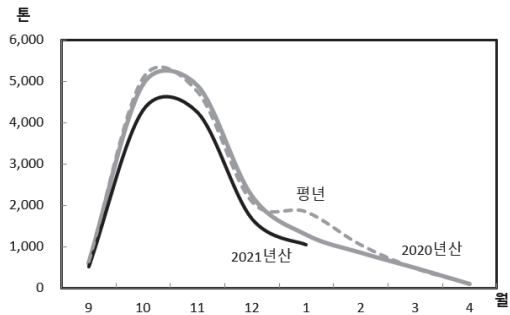
- 2022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만 3,509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식재된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 대비 7% 감소하겠으나,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주 재배품종인 캠벨얼리와 거봉류는 전년 대비 각각 7%, 13% 감소하겠으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샤인머스켓은 전년 대비 24%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루비로망·홍주씨들리스·마이하트·블랙사파이어 등 기타품종의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5.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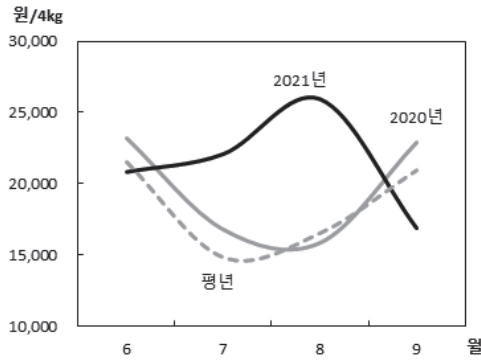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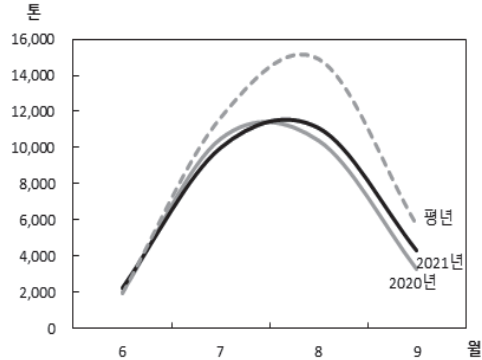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29% 상승한 36,300원/10kg이었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5% 상승한 42,400원/10kg이었음.
 - 설 성수기(설 전 1주간, 1.24.~1.30.) 부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7% 상승한 43,500원/10kg이었음.
 - 2월 이후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8,543ha로 전망됨. 태추와 원추 등 신품종의 식재 증가로 유목면적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나,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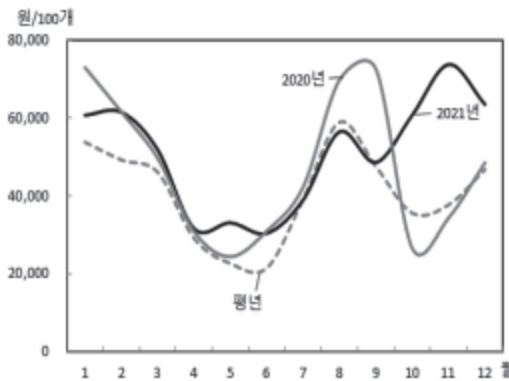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농수산물공사

- 2022년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만 9,215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품종 갱신으로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폐원 증가, 작목 전환, 품종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유모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등 타 작목 전환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 감소하나, 천도계 재배면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비·옐로드림 등 신품종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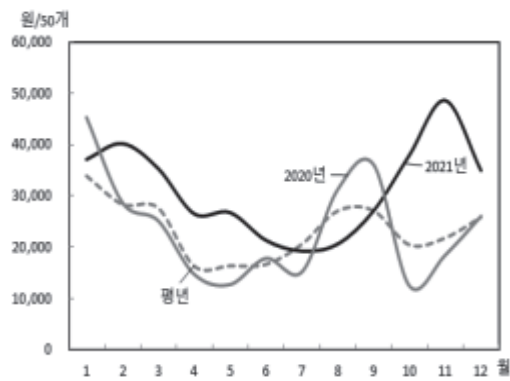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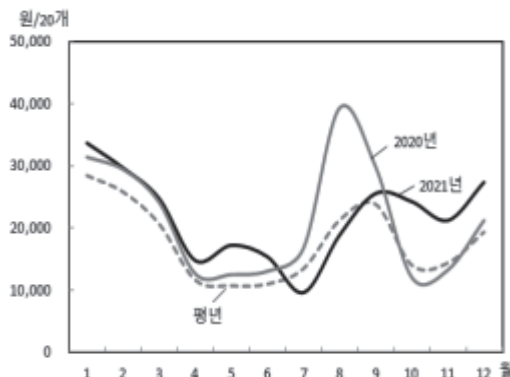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60,800원/100개, 11월 73,800원, 12월 63,5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66,100원/1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였음.
 - 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정식시기 고온 등으로 생육이 부진하였고, 병·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37,900원/50개, 11월 48,500원, 12월 34,900원이었음. 4분기 평균가격은 40,500원/5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강형준(94ju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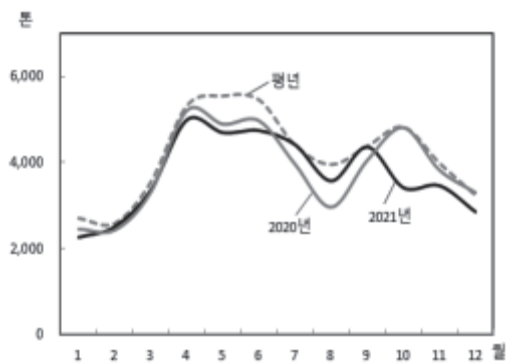
- 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가 많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18% 높은 73,100원/100개, 43,800원/50개이었음. 주 출하지인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기온 하락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2~3월 백다다기오이와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영남과 호남지역의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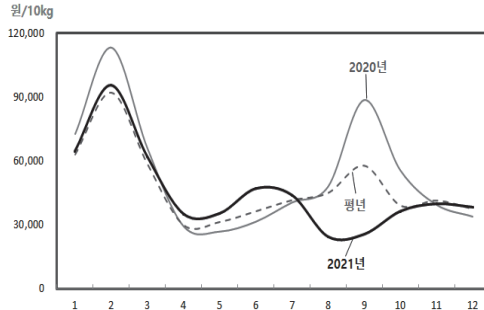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4,300원/20개, 11월 21,200원, 12월 27,4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4,300원/2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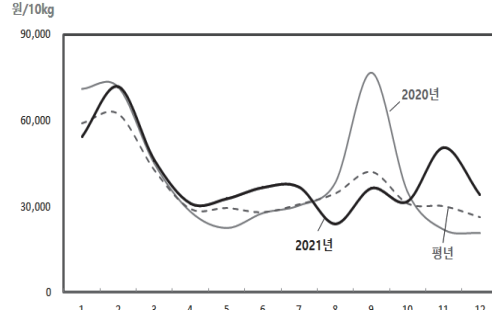
- 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 악화와 곰보바 이러스 피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소폭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1% 높은 33,900원/20개이었음.
 - 2~3월 애호박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 양호로 생육이 좋아 바 이러스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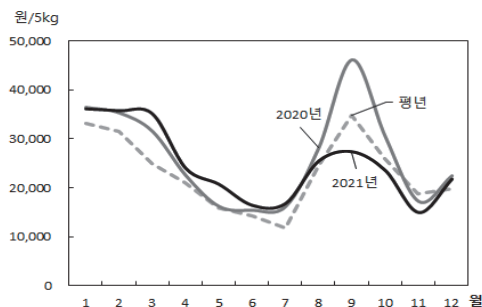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36,300원/10kg, 11월 39,700원, 12월 38,1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낮은 38,0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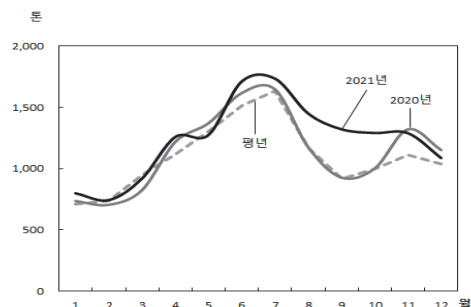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31,700원/10kg, 11월 50,500원, 12월 34,1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1% 높은 38,800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가격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오이맛고추는 재배면적 감소와 충청·강원지역 출하마무리가 빨라지면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19% 높은 76,600원/10kg, 오이맛고추는 18% 높은 64,500원/10kg임.
 - 청양계 및 오이맛고추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은 주산지인 경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었고, 전년 대비 빠른 설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3월 청양계 및 오이맛고추 출하량은 재배면적은 줄었으나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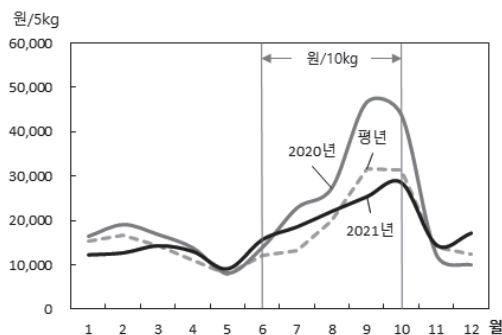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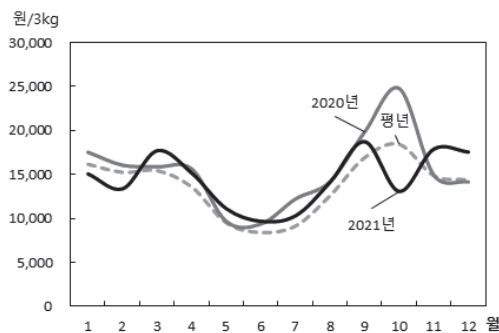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3,400원/5kg, 11월 14,900원, 12월 21,7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4% 낮은 20,000원/5kg이었음.
 - 4분기 빨강파프리카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하였음. 영남지역의 기상 여건이 좋아 전년 대비 병·해충과 바이러스 피해가 적어 출하량이 증가하였음.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13% 낮은 31,400원/5kg이었음.
 - 빨강파프리카 가격이 전년 대비 낮은 것은 영남지역의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수출물량이 국내로 유통되어 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3월 빨강파프리카 출하량은 신규농가 유입과 기존 농가의 재배규모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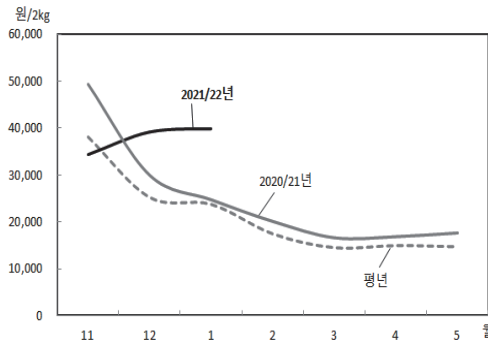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10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강원지역 기상 여건 호조로 반입량이 증가(52%)하여 전년 대비 35% 하락한 28,500원/10kg이었음. 11~12월 평균가격은 15,900원/5kg으로 전년 대비 42% 상승함. 이는 가을철 기온이 높아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일조시간도 줄어 반입량이 감소(-6%)하였기 때문임.
 - 대추형방울토마토 10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104%)로 전년 대비 47% 하락한 13,100원/3kg이었음. 11~12월 평균가격은 17,700원/3kg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함. 이는 가을철 고온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로 반입량이 감소(-9%)하였기 때문임.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44% 상승한 17,700원/5kg이었음.
 - 2~3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저온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5% 상승한 20,400원/3kg이었음.
 - 2~3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작황이 부진한 농가의 12~1월 재정식에 따른 출하면적 감소와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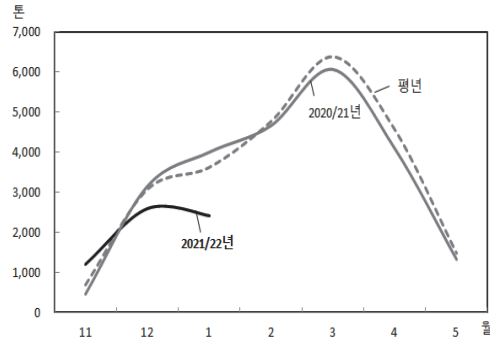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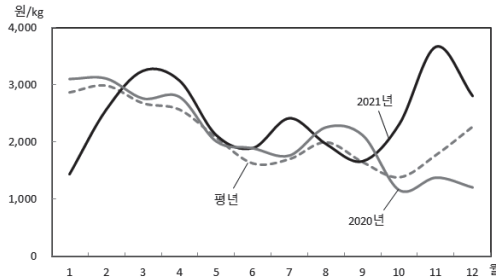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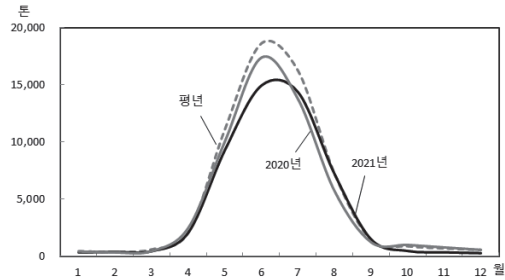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 동향
 - 4분기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20% 낮은 39,100원/2kg 이었음.
 - * 4분기 월별 가격(원/2kg, 상품): 10월(44,000), 11월(34,300), 12월(39,118)
 - 4분기 딸기 평균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정식을 조기에 한 농가가 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 4분기 딸기 반입량: 2021년(3,853톤), 2020년(3,620톤)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딸기 도매가격은 작황부진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전년(24,600원) 대비 62% 상승한 39,800원/2kg이었음.
 - 1월 딸기 반입량은 전년(3,997톤) 대비 적은 2,411톤으로 주산지인 경남지역과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임.
 - 2~3월 딸기 출하량은 경남지역, 논산에서 지연되었던 물량이 출하되면서 1월보다는 증가하겠으나, 생육기(9월 하순~10월 상순) 고온피해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1년 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320원/kg, 11월 3,660원, 12월 2,810원이었음.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250원) 동기 대비 135% 상승한 2,930원이었음.
 - 수박 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 출하가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줄었으며,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2022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1,440원) 대비 91% 상승한 2,750원/kg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역인 경남지역에서 병 발생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3월 수박 출하량은 타 작목(당근 등)에서 수박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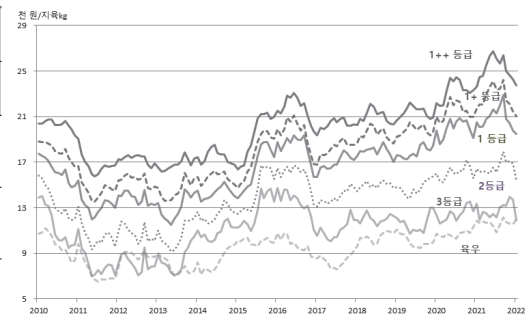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우

구분	20년		21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p
사육 농장수	93	93	93	94	94	94
총 마릿수	3,435	3,395	3,373	3,568	3,623	3,555
가임 암소	1,551	1,555	1,532	1,564	1,634	1,638

주: 2021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2021년 4분기 동향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362만 3천 마리)보다 1.9% 감소한 355만 5천 마리(전년 동월 339만 5천 마리보다 4.7% 증가)
 -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8만 4천 마리, 육우 17만 마리
 - * 한우 가임암소 마릿수 163만 8천 마리(전년 동월 155만 5천 마리보다 5.3% 증가)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전분기 21,956원/지육kg보다 4.4% 하락한 20,988원(전년 동기 20,069원보다 4.6%, 평년 동기 17,767원보다 18.1% 상승)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형우(lhw0906@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전문연구원, 지선우(bsn02@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경진(kkj047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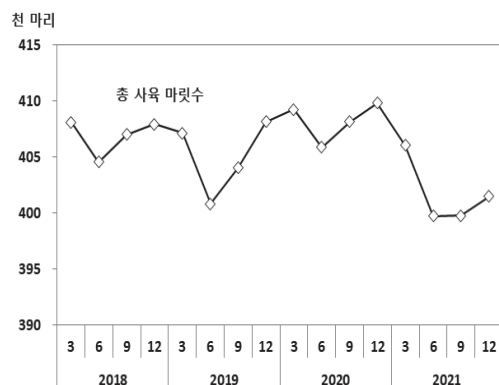
- (한우) 2022년 1분기 전망
 - 1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20만 4천 마리)보다 5.3% 증가한 337만 5천 마리
 - 1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18,500 ~19,500원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1년(A)	2021년	2022년(B)	B/A
사육 마릿수	3월 320만 4천 마리	12월 341만 2천 마리	3월 337만 5천 마리	5.3%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1분기 20,414원	4분기 20,988원	1분기 18,500~19,500원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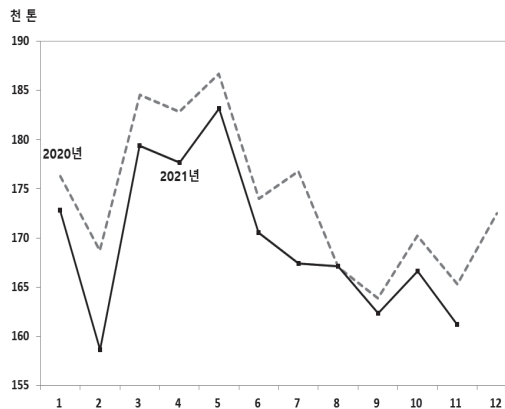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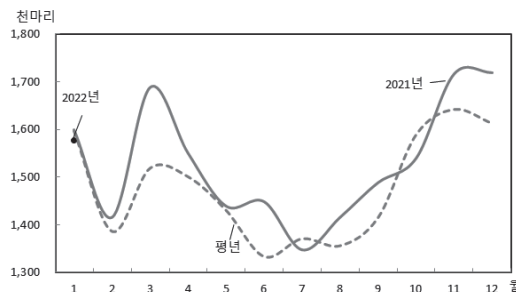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1년 4/4분기 동향
 - 12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40만 1천 마리
 - 10~11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32만 8천 톤
- 2022년 1/4분기 전망
 - 2022년 1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39만 9천~40만 2천 마리 전망
 -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50만 1천~50만 3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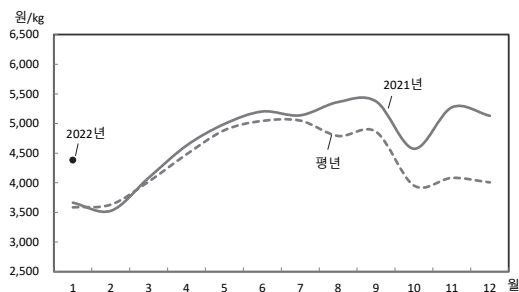
6.3.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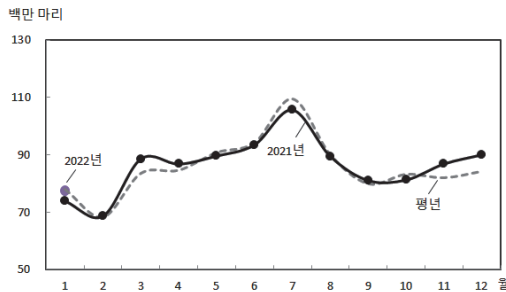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1년 4/4분기 동향
 - 2021년 11월 말 기준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9% 증가한 97만 7천 마리, 모돈·자돈·육성돈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1% 증가한 1,188만 마리(이력제)
 - 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484만 마리)보다 2.8% 증가한 498만 마리

- 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가정 내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4,153원/kg)보다 상승한 5,003원
- 2022년 1/4분기 전망
 - 1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479만 2천 마리
 - 1분기 도매가격은 가정 내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 (1월 4,385원, 2~3월 4,300~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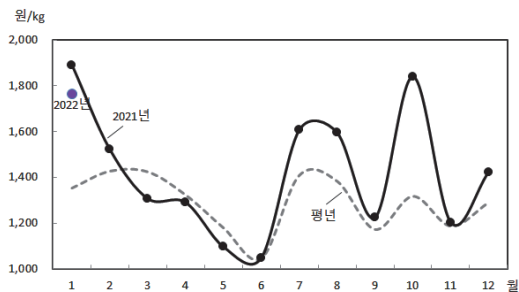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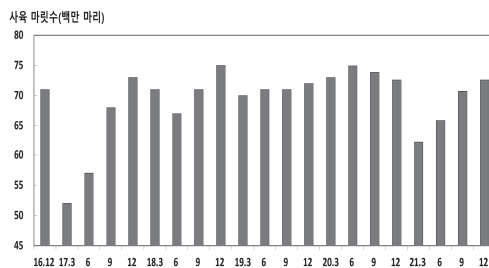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21년 4/4분기 동향
 - 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 1~4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와 작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매몰 처분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483만 마리
 -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억 5천 8백만 마리

- 4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급작스러운 기온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7.9% 상승한 1,489원/kg
- 2022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성계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보다 증가
 - 1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전년보다 2.9% 많은 2억 3천 8백만 마리
 - 1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가 늘어 전년 대비 6.6% 하락한 1,767원/kg, 2~3월 육계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1,300~1,5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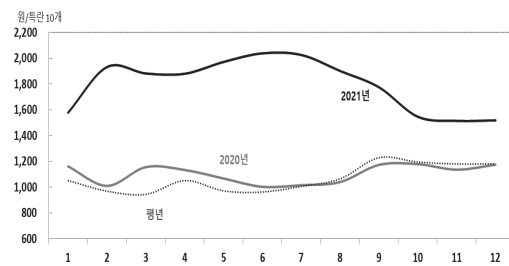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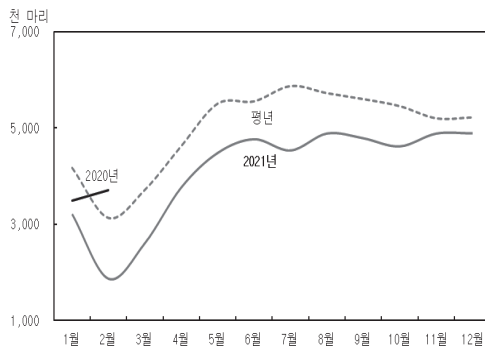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이후)

- 4/4분기 동향
 -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261만 마리로 전년(7,258만) 및 평년(7,266만)과 비슷하였으나,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5.7%, 4.3% 감소한 5,235만 마리
 - 3개월 미만은 전년 및 평년 대비 27.8%, 13.6% 증가하였으며, 3~6개월령 미만은 전년 및 평년 대비 9.9%, 11.4%로 증가

- 4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0%, 15.6% 증가한 1,408만 마리, 4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0%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6.6% 증가한 809만 마리
- 4분기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1,166원) 및 평년(1,186원) 대비 31.0%, 28.7% 상승한 1,527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2~3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입식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3% 하락한 1,510원
 - 2~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1,400~1,5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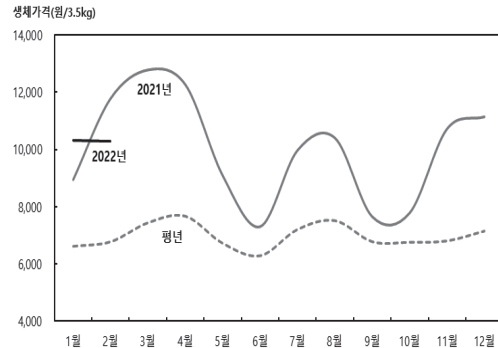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1년 4/4분기 동향
 -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4.8% 감소한 675만 2천 마리, 육용오리와 종오리는 전년 대비 각각 15.3%, 10.4% 감소한 611만 7천 마리, 63만 5천 마리
 - 4분기 도압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438만 1천 마리, 4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77.6% 상승한 9,885원
- 2022년 1/4분기 전망
 - 1~3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사육제한 시행 이후 입식이 원활해지면서 HPAI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3월 오리 생체가격은 가격이 높았던 전년보다 낮은 10,000원/3.5kg 내외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9	78.5
	4~5명 이하	38	11.5
	6명 이상	33	10.0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양지아(jigeumaa@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7%, 300m²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8.5%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1년 4/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21(5점 척도)로 전년 동기(1.96)대비 상승한 수준이며, 전 분기(2.42)와 비교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0년 4/4분기	2021년 3/4분기	2021년 4/4분기
1.96	2.42	2.21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10~12월 음식업체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의 평균적인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84.2로 응답되어 전 분기(2021년 7~9월)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1년 4/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86.5로 나타나 전 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2.2. 곡류

- 2021년 4/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2% 증가하였고, 전 분기보다 6.8% 증가함.
 - 감자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하였고,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하였음.

곡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0.2	6.8	-1.7	-0.7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쌀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감자의 경우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0	-3.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1년 4/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고, 양념채소류는 0.1% 감소함.
 - 엽근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13.6% 증가함.
 -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다른 품목 대비 건고추는 35.0%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3.1	건고추	35.0
배추김치	13.6	고춧가루	-0.3
무	-1.2	마늘	1.4
당근	2.1	양파	-0.1
양배추	4.2	대파	-1.8
소계	7.6	소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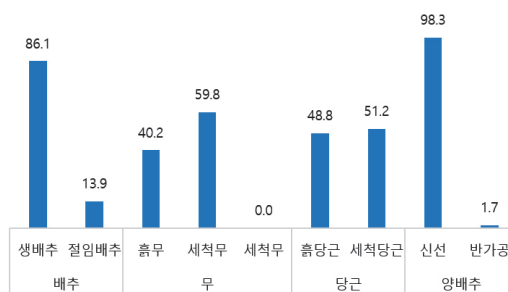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5%), 양배추(98.3%), 홍양파(89.2%), 생배추(86.1%)이며, 무, 당근, 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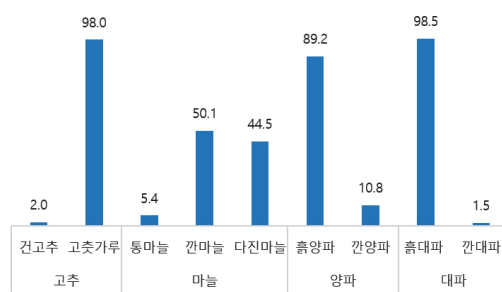
<엽근채소>

단위: %



<양념채소>

단위: %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4/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의 중국산 비중이 높음.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3.4%), 깐양파(57.8%), 고춧가루(4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중국산 배추김치의 구매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파, 무, 배추는 전체 구매의 9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배추김치, 당근, 양배추, 깐마늘, 다진마늘, 깐양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증가함.
 - 중국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82.0%)’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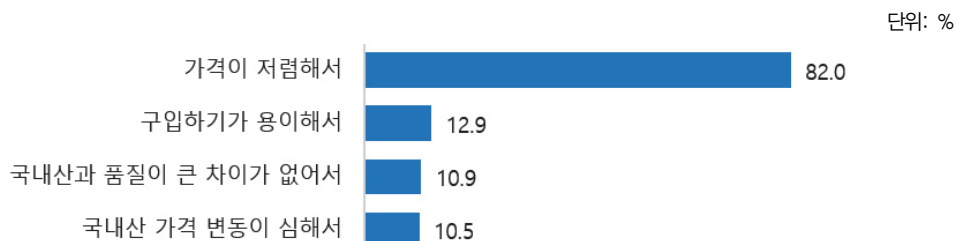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0년 4/4분기		2021년 4/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6	0.4	99.3	0.7
	배추	100	0	99.0	1.0
	배추김치	15.1	84.9	26.6	73.4
	당근	58.3	41.7	61.3	38.7
	양배추	88.2	11.8	90.4	9.6
양념채소	건고추	81.6	18.4	59.1	40.9
	고춧가루	52.2	47.8	51.4	48.6
	통마늘	82.3	17.7	79.7	20.3
	깐마늘	51.8	48.2	57.3	42.7
	다진마늘	52.6	47.4	57.8	42.2
	훈양파	90.6	9.4	90.4	9.6
	깐양파	41.1	58.9	42.2	57.8
	대파	99.8	0.2	99.8	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채소류 구입한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1년 4/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0.2%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6.8%로 완제품의 구입 비율이 더 높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3.6%로 앞으로 중국산보다 국내산 김치(배추)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김치 사용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76.3%로 나타났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23.7%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77.8%)’,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19.4%)’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36.1%)’, ‘단무지 제공(27.8%)’, ‘안 함(22.2%)’, 국내산 배추김치(겉절이 포함) 제공(13.9%)’의 순으로 나타남.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입
30.2	56.8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단무지 제공	안 함	국내산 배추김치 (겉절이 포함) 제공
36.1	27.8	22.2	13.9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엽근채소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4/4분기)에 비해 1.1% 증가하고, 양념채소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배추김치와 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대파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건 고추의 경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7.9	건고추	35.0
배추김치	-3.6	고춧가루	0.0
무	-0.6	마늘	2.8
당근	2.0	양파	2.0
양배추	5.7	대파	-2.3
소계	1.1	소계	1.4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1년 4/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풋고추, 애호박,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4%, 2.4%,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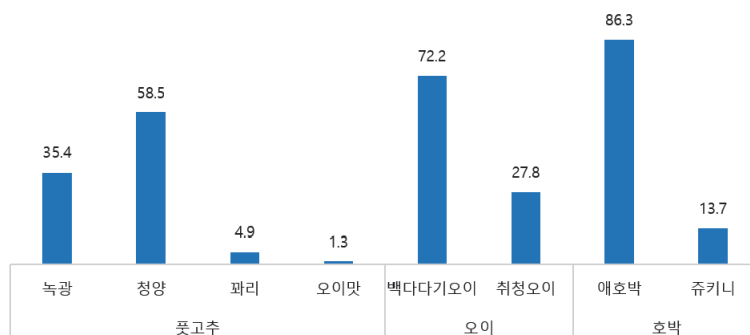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4	2.1	2.4	2.3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5.4%), 파리고추(4.9%), 오이맛(1.3%) 순으로 구입함.
 - 오이는 취청오이(27.8%)보다는 백다다기오이(72.2%)를, 호박은 추키니(13.7%)보다는 애호박(86.3%)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4/4분기)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6.0%, 2.9%,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9	2.3	6.0	3.4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물

- 2021년 4/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계란, 쇠고기, 닭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9%, 1.4%, 0.4% 증가하였으며, 계란, 돼지고기의 경우 14.5%, 0.9% 감소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4	-0.9	0.4	-14.5	4.9	3.9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4/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3.1%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국내산 구입 비중은 0.7%p 감소하고, 미국산 구입 비중은 4.5%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5.3%로 전년 동기 대비 1.6%p 감소하였으며, 그 외 미국산과 뉴질랜드산은 2.8%p, 0.8%p 증가하고, 칠레산과 캐나다산은 각각 1.2%p, 1.1%p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8%,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0년 4/4분기					2021년 4/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1.2		67.8		21.0	10.5		73.1		16.5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6.9	9.7	7.2	12.3	1.7	65.3	12.5	6.1	11.1	2.5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5.8		5.0		8.2	83.8		7.1		9.0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96.7		3.3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4/4분기)에 비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2.3%, 5.2%, 1.0%, 0.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고기의 경우 1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32.3	0.3	1.0	-16.6	5.2	5.1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1년 4/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2.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9.9%)’,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9.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2.8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9.9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9.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1.4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6.8
단가가 저렴해서	0.1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3/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2.1%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8.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17.6%)’,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1.2%)’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8.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17.6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1.2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0.0
없음	0.9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5.5%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수박이 3.6%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42.9%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사과	3.6	방울토마토	0.6
오렌지	3.3	귤	0.6
배	1.5	수입포도	0.6
파인애플	1.2	바나나	0.6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9%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42.9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21.4
손님들이 선호해서	21.4
국내산보다 맛이 좋아서	14.3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오’ 응답이 10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2.7 요약 및 시사점

- 2021년 4/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0년 4/4분기에 비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채소, 축산물, 과채류는 각각 7.6%, 3.9%, 2.3% 증가하였으며, 양념채소의 경우 0.1% 감소하였음.
- 2021년 4/4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었으나, 전 분기(2021년 7~9월)보다 주요 품목별 평균 구매량이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순으로 높음. 수입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82.0%)’가 가장 높게 응답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쇠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0.7%p 감소한 10.5%로 나타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2.8%)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19.9%),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9.0%)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업체의 32.1%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8.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17.6%)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6.1%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사과, 오렌지, 배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 ① 청년 대학생의 농촌 유입 의향
- ②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와 시사점

청년 대학생의 농촌 유입 의향¹⁾

마상진*

1. 서론

-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시대에 도시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 청년들은 취업 기회, 좋은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안감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청년을 필요로 함.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음. 후계 세대 출산·양육과 더불어 뛰어난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갖춘 청년세대는 침체된 농촌의 미래에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실히 필요함.
- 청년 중에서도 대학 졸업생의 농촌 진출은 농촌의 고급인력 결핍과 도시의 고급인력 잉여 현상을 접목시키면, 청년 실업과 농촌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사회적 당면 과제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후기 청소년 단계에 해당하는 대학 시기에 향후 진로결정에 관한 고민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이 때 어떤 교육적·사회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김지영, 이민영, 2018; 이현림, 1997).

1) 이 글은 마상진·최재현(2021)의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와 김경인·마상진(2021) 논문 일부를 요약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msj@krei.re.kr)

- 이 글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농촌에 진입 관련 인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대학생 현황과 진로 실태

- 우리나라 대학은 2020년 기준 429개가 있는데 이중 전문대학 136개, 교육 및 일반대학 191개, 기타대학 47개(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 및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가 있음. 대학생(전문대학, 대학) 수는 2020년 기준 295만 명(전문대학 62만 명, 교육대학 1.6만 명, 일반대학 198만 명 등). 학년별로 65~90만 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음(1학년 76만 명, 2학년 90만 명, 3학년 65만 명, 4학년 61만 명).
-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2019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18.8월 졸업자 포함)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임.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만 1,929명, 해외취업자 2,853명, 1인 창(사)업자 6,137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1만 8,347명이었음. 졸업자 중 진학자는 3만 5,800명, 진학률은 6.5%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현황¹⁾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수 ²⁾	졸업자 ³⁾	취업 대상자 ⁴⁾	취업자 ⁶⁾	취업률 ⁵⁾	진학자	진학률 ⁷⁾
고등교육기관	547	550,354	481,599	323,038	67.1	35,800	6.5
전문대학	138	166,521	146,922	104,159	70.9	10,822	6.5
대학	191	323,881	286,409	181,255	63.3	21,907	6.8
교육대학	10	3,824	3,667	2,338	63.8	33	0.9
산업대학	3	2,907	2,785	1,991	71.5	34	1.2
각종학교	2	525	434	242	55.8	52	9.9
기능대학	28	7,088	6,518	5,214	80.0	119	1.7
대학원	175	45,608	34,864	27,839	79.9	2,833	6.2

주: 1) 조사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2) 학교수 : 졸업자가 있는 학교 수(폐교 포함)로서, 분교(대학 5개교, 일반대학원 5개교)도 포함

3) 졸업자 : 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4)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5)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6) 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7)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자료: 교육부(2020.12.28.),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3. 대학생 농업 농촌 관련 진로 계획

- 국내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지역별, 전공별, 학력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목표 표본은 1,500명이었으나 실제 1,692명이 조사되었음. 웹/모바일 조사를 2021년 8월 30일 ~ 2021년 9월 14일에 걸쳐 실시하였음(조사업체 (주) 아이알씨). 조사내용은 대학만족도 및 성적수준, 졸업 후 진로계획,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농촌 유입 의향, 농촌 관련 진로의식, 응답자 기본 정보 등이었음.
- 졸업 이후 최종적인 진로 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은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학(외국 유학 포함)’ 11.7%, ‘취/창업과 진학 병행’ 7.1%, ‘창업’ 3.3%, ‘기타 계획’ 2.6%의 순이었으며, 6.9%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최종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 중 농림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율은 ‘농림업 관련 금융·정보통신·연구·행정 등’ 3.4%, ‘식품가공 산업(농축산물 가공, 식품 및 음료 제조)’ 1.7%, ‘외식 산업(조리, 제과제빵 등)’ 1.6%, ‘농업 생산(영농) 분야’와 ‘식품 유통업(도소매, 운송 등)’ 각각 0.8%, ‘농림업 기간산업(농기계, 토목, 사료, 비료, 농약, 종자 등)’ 0.7%, ‘농촌 체험·관광 분야’ 0.6%였음. 90.3%는 농림업 외 분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대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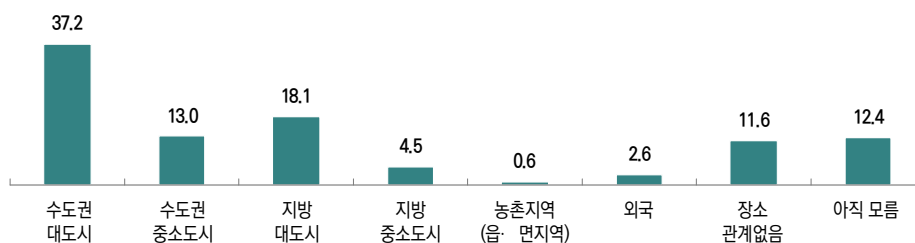
(N=1,692, 전체응답자, 단위: %)



- 졸업 후 진로계획(취·창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규모는 ‘수도권 대도시’가 37.2%로 가장 많았고, ‘지방 대도시’ 18.1%, ‘수도권 중소도시’ 13.0%, ‘지방 중소도시’ 4.5%, ‘외국’ 2.6%, ‘농촌지역(읍면지역)’은 0.6%에 그침. ‘미정’이라는 응답은 12.4%, ‘장소 관계없음’은 11.6% 등 이었음.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규모

(N=1,692, 전체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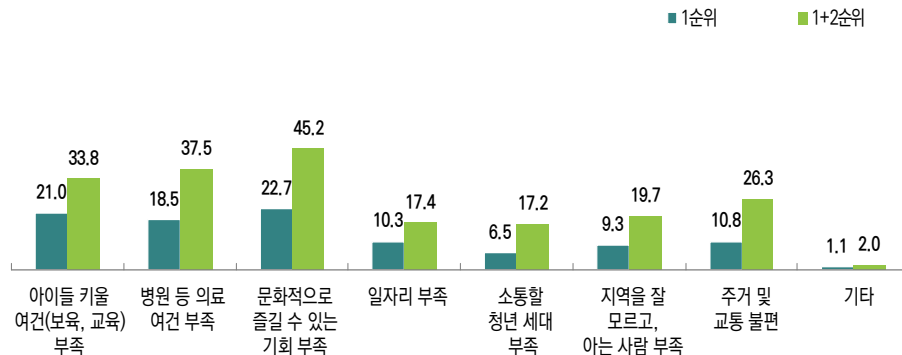


- 향후 농촌에서 진로계획을 펼치거나 거주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1순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부족’(22.7%)과, ‘아이들 키울 여건(보육, 교육) 부족’(21.0%) 등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등 의료

여건 부족' 18.5%, '주거 및 교통 불편' 10.8%, '일자리 부족' 10.3%, '지역을 잘 모르고, 아는 사람 부족(가족/친구와 떨어져 살기 등)' 9.3%, '소통할 청년 세대 부족' 6.5% 등의 순이었음. 복수응답(1+2순위 기준) 기준으로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부족'이 4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병원 등 의료 여건 부족' 37.5%, '아이들 키울 여건(보육, 교육) 부족' 33.8%, '주거 및 교통 불편' 26.3%, '지역을 잘 모르고, 아는 사람 부족(가족/친구와 떨어져 살기 등)' 19.7%, '일자리 부족' 17.4%, '소통할 청년세대 부족' 17.2% 등의 순이었음.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진로계획을 펼치거나 거주시 가장 큰 걸림돌

(N=1,692, 전체응답자, 단위: %)



4. 대학생 농촌 거주 의도

- 이 글에서는 대학생의 농촌 거주 의도를 ‘농촌 거주 의향’과 ‘농촌 거주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합산 값으로 정의하였는데, 두 문항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농촌 거주 의향과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합산 값의 평균은 4.3(표준편차 1.57)이었음. 농촌 거주 의도가 6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7.9%, 중간(6점)인 경우는 14.7%, 6점 초과인 경우는 7.4%였음.
- 농촌 거주 의향이 있는 경우는 12.6%,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경우는 3.7%였음. 농촌 거주에 관한 적극성의 정도를 고려할 경우, 대학생 중 소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농촌 거주 의향이 있으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은 10.6%, 적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농촌 거주 의향과 더불어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은 2.0%였음. 반면, 농촌 거주 의향도 없고,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경우는 전체의 48.7%였음.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수(2021년 기준 1,968,202명(국가통계포털, 2021))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을 하면, 농촌 거주 의도가 있는 학생은 약 6만 여명이며, 그 중 적극적 농촌 거주 의도를 가진 학생은 약 1만 여명 정도로 추정됨²⁾

2) 농촌 거주 의도가 있는 학생은 61,998명($=1,968,202 \times 12.5\% \div 4$), 그 중 적극적 의도가 있는 학생은 9,841명($=1,968,202 \times 2.0\% \div 4$)이었다. 이 논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학생의 농촌 관련 진로 인식 조사>에서는 ‘기회가 되면 농촌에서 일정기간(1개월 이상) 살아보기 체험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물었다. 이 질문에 ‘체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4.6%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농촌 삶이 자체에 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농촌 거주 의향 및 거주 노력 정도

단위: 명(%)

노력 정도 \ 거주 의향	없음 ¹⁾	보통	있음	전체
하지 않음	626 (48.7)	444 (26.2)	112 (6.6)	1,382 (81.6)
보통	24 (1.4)	158 (9.3)	68 (4.0)	250 (14.7)
하고 있음	15 (0.8)	12 (0.7)	35 (2.0)	52 (3.7)
전체	865 (51.1)	614 (36.2)	215 (12.6)	1,694 (100.0)

주: 1) 없음(없는 편+전혀 없음) 많음(많은 편+매우 많음), 하지 않음(하지 않는 편+전혀 하지 않음), 하고 있음(하는 편+매우 많이 함)을 의미함.

- 농촌 거주 의도 관련 요인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김경인·마상진 2021)를 토대로 도출된 개인 특성, 부모 특성, 과거 경험, 계획 행동 이론 관련 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 대학생의 농촌 거주 의도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56.3%였으며 (Adjusted R square = .563),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199.39$, $p<.001$). 청년의 농촌 거주 의도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농촌 거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beta = .606$, $p<.001$)였고, 그 외에도 농업·농촌에 관한 미디어를 자주 보는지의 여부($\beta = .080$, $p<.001$),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의 여부($\beta = .077$, $p<.001$), 일자리 구하기 자신감($\beta = .076$, $p<.001$), 농촌 거주에 대한 가족들의 찬성($\beta = .073$, $p<.001$), 농촌 사람들과의 교류($\beta = .058$, $p<.01$), 농촌 거주에 대한 친구의 찬성($\beta = .054$, $p<.01$), 교육포부($\beta = -.052$, $p<.01$) 및 부모의 학력($\beta = .033$, $p<.05$) 변인이 있었음.

대학생들의 농촌 거주 의도에 관련 변인 분석

변인	B	표준오차	베타	t	p
교육포부	-.124	.040	-.052	-3.138	.002
부모의 학력	.023	.011	.033	2.013	.044
농업·농촌에 관한 미디어를 자주 보는지의 여부	.269	.056	.080	4.822	<.001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의 여부	.275	.061	.077	4.482	<.001
농촌 거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	.963	.029	.606	33.322	<.001
농촌 거주에 대한 가족들의 찬성	.100	.028	.073	3.560	<.001
농촌 거주에 대한 지인 및 친구의 찬성	.079	.030	.054	2.601	.009
일자리 구하기에 대한 자신감	.100	.024	.076	4.246	<.001
농촌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자신감	.076	.023	.058	3.230	.001
상수	.571	.193	-	2.954	.003

주: 1) R square=.566, Adjusted R square=.563, F=199.390

5. 결론

- 현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은 중요하며(김정섭 외, 2018; 송미령 외, 2019),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은 고용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고영우 외, 2018; 마상진 외, 2017; 오내원 외, 2010; 정도채 외, 2021)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의 농촌 거주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임.
- 대학생들의 농촌 거주 의도를 살펴보면, ‘소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은 10.6%, ‘적극적 농촌 거주 의도 집단’은 2.0%였다. 이는 전체 대학생 모수로 추정했을 때, 매년 많게는 6만 여명(소극적 의도자 포함), 적게는 1만 여명(적극적 의도자만 의미)의 규모임. 이러한 대학생 졸업자의 농촌 거주 의도를 귀농·귀촌 정책을 포함한 농업·농촌 정책에서 제대로 담아낸다면, 적극적 의도자만으로도 1년에 대략 1만 여명의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구체적으로는 3~4년에 한 명씩의 청년들을 전국의 37,537개(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촌 마을에 유입할 수 있는 규모임.
- 대학생의 농촌 거주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 변인으로 개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학력, 과거 경험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관련 미디어나 신문·잡지를 자주 보는지의 여부, 과거 농촌에서 살았던 경험이 도출되었음. 그리고 농촌 거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족과 친구가 자신의 농촌 거주를 찬성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 일자리 구하기 및 농촌 주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자신감 정도 등이 유의미하게 농촌 거주 의도를 예측했음. 이 연구 결과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의 농촌 거주 의도를 확대하기 위해 고민해 볼 사항들을 살펴보았음.
- 첫째,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 그 중에서도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농촌 거주를 찬성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농촌 거주 의도가 높았음. 이 점은 농촌 거주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이 개인만의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

람들의 의견이 고려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강성일, 하규수, 2011; 성주인, 남기천, 2012)와 동일한 결과임. 그리고 농촌 거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실질적인 이주 준비에 관한 교육·훈련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단기간의 농촌 체험·관광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몇 달간의 농촌 살이 체험 프로그램들의 대상을 기존의 ‘개인’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과거에 농촌에서 산 경험이 있을수록 향후 농촌 거주 의도가 높았음. 이는 청년들에게 농촌 거주 경험을 확대·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농촌 거주 경험은 앞서 논의한 관광이나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사계절 변화에 따라 농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시도·경험해보는 것이 향후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의 경우,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최소 1~3년 간 활동비와 인건비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협력대원들은 지역에서 취·창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그것에 연계한 소득 창출원을 찾음(김지훈, 2019; 유학열, 2017). 박진경, 김도형(2020)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미혼 청년 중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사람은 9.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기를 원했음. 구체적으로 농촌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계획인지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들의 요구와 선호에 맞춰 지원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관련 성공·실패 사례들을 평가·분석하여 적절한 기간의 거주 경험을 산정하고, 농촌 지역의 요구와 청년의 요구가 부합되는 일 경험을 제공한다면, 향후 청년들이 농촌에서 직업을 가지고, 원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농업·농촌에 관한 미디어를 자주 접할수록 농촌 거주 의도가 높았음. 현재 우리 사회는 소셜 미디어(소셜 네트워크 기반 온라인 플랫폼)가 활성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농촌 원주민 또는 귀촌을 준비하거나 이미 실행한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음.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들은 농업·농촌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게시판 및 댓글 창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음. 이런 미디어들이 농촌 거주 의도의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고, 농촌 거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커뮤니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농촌에 관심이 있거나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온라인에서 매칭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이는 선행 경험이 있는 이들이 멘토 역할을 하며 조언을 하거나,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임.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와 시사점¹⁾

이두영*, 김상현**, 정대희***, 김범석****

1. 디지털 무역의 확대

1.1.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자동화,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 오프라인 수출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디지털화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역되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함.
 - 디지털 전환은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전환은 1)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전산화(digitisation)와 2)디지털 기술 및 정보와 상호연결을 통한 기존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화(digitalisation) 등 두 부분의 경제 및 사회

1)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R939)를 참고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douyoung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anghyu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dhch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bskim89@krei.re.kr)

적 영향을 의미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디지털 무역 실태를 파악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음.

1.2. 농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현황

- 디지털 무역은 크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 국경 간 정보이전 등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농식품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임.

디지털 무역의 범위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e아기 블로그([www.moef.go.kr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sfnct&logNo=221508484815](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sfnct&logNo=221508484815), 검색일: 2021. 1. 29.).

- 다만, 디지털 무역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국가별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편임. 디지털 무역의 일부분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Cross-Border E-Commerce)을 따로 집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음.²⁾

2) 관세청 보도자료, 2019. 2. 24.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 건 돌파.”

-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B2C e-commerce) 규모를 2018년 판매액 기준 4,040억 달러로 추정하였음. 이 중 중국이 1,000억 달러, 미국이 850억 달러, 영국이 400억 달러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규모는 30억 달러로 전 세계 9위 수준이며, 전체 상품 수출의 0.5%, 국내 B2C 전자상거래 규모의 3.2%로 아직 높지 않음. 또한 전 세계 14.5억 명이 2018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고 있고 이 중 3.3억 명 정도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경 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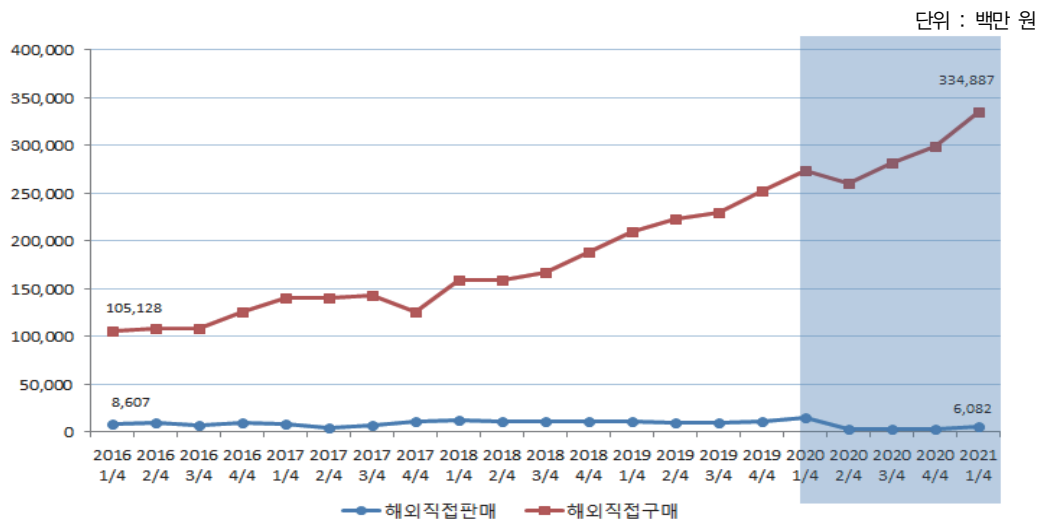
구분	국가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 (십억 달러)	상품 수출 대비 비중 (%)	국내 B2C 매출액 대비 비중(%)
1	중국	100	4.0	7.3
2	미국	85	5.1	7.8
3	영국	40	8.2	15.0
4	홍콩, 중국	35	6.2	94.3
5	일본	21	2.9	13.1
6	독일	15	1.0	14.9
7	프랑스	12	2.0	10.6
8	이탈리아	4	0.8	13.9
9	대한민국	3	0.5	3.2
10	네덜란드	1	0.2	4.4
상위 10개국		317	3.2	9.6
전 세계		404	2.1	-

자료: UNCTAD(2020). "UNCTAD Estimates of Global E-Commerce 2018."

□ 우리나라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현황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기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농식품 수입은 2016년 이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농식품 수출은 2016년 1분기 86억 원에서 2021년 1분기 61억 원으로 정체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對세계 농식품(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해외 직접구매·판매액 비교



주: 해외직접판매액은 면세점과 면세점 이외의 판매유형을 포함.
자료: 이두영 외(2021).

- HS 세번이나 품목별로 살펴볼 수 있는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은 827만 달러이며, 상위 25개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임.
 - 조제품 기타와 홍삼류의 수출액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미국, 일본, ASEAN, 중국의 비중이 높음.
- 다만,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0.0%에서 2021년 0.3%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초보적 단계임.

전체 농식품 수출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

단위: 천 달러

구분(거래형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식품 수출 전체	6,159,493	6,469,530	6,518,933	6,695,509	7,244,736	2,607,305
전자상거래	2,318	2,140	2,723	2,528	8,272	8,925
전자상거래 비중(%)	0.0	0.0	0.0	0.0	0.1	0.3

주: 2021년의 경우 4월까지의 집계임.
자료: 이두영 외(2021).

2.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무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다자통상을 대표하는 WTO에서는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FTA에서도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이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더 나아가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에 따라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³⁾을 추진하고 있음.

2.1. 국제 논의 동향

□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 WTO 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논의는 전자상거래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real Council: GC)에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에 부과하는 기존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로서 전자상거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
 - 1998년 5월 WTO 회원국들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2차 각료회의(Second Ministerial Conference: MC2)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함.
- 현재 WTO는 6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각각 디지털 무역 환경조성, 개방성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 공통 이슈, 전자통신서비스, 시장접근 등 6대 협상의제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3)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FTA와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협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6. 22.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

4) WTO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이라고 정의한다.

□ 주요국 디지털 무역 협상 논의 동향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해졌으나 국별 상이한 인터넷 기술 수준과 정책, 전자상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최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 및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DEA) 등이 대표적인 단독 디지털무역협정임.

2.2. 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과 농식품 수출 이슈

□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농식품 디지털 무역 활성화

- 전자상거래 원활화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종이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등임.
- 종이없는 무역 조항은 무역행정 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과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 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shall endeavour)할 것을 주요 FTA 전자상거래 규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의무화하고 있음.
 - 신선 농식품은 부패하기 쉽고 유통기간이 정해진 특성이 있어서 신속한 통관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함. 현재 한미 FTA 협정은 농식품 교역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다른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무역행정 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 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음.

-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수단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가 적절한 방법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명이 전자적 형태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국내 전자 전송 프레임워크 관련하여 유엔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과 2005년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등과 같은 국제 표준규범을 제정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가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에 의한 계약 및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국가별 관련 법제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 간 FTA 또는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이런 두 가지 유엔의 국제 표준규범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도 책임문제, 물품반환, 지불, 사기예방, 관세 등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국내 관련 법규가 유엔의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과 농식품 소비자 정보

-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과 농식품 소비자 정보와 관련된 규정은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와 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임.
-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와 컴퓨팅 설비의 위치는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한하는 규정임.

-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무역의 경우 소비자들이 접속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소비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처리되는 것(현지화)의 의무화를 금지하고 소비자정보에 대한 국경 간 정보 이전(국경 간 정보이전 자유화) 문제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해당됨.

□ 온라인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과 농식품 디지털 무역

- 온라인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과 관련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등임.
- 개인정보 보호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함.
 -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자상거래 공급자에게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 활용이 판매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짐. 개별 기업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온라인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 농식품은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식품 교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 담당기관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나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상대국의 소비자 보호 담당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스팸 메시지는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방지 방안·스팸 메시지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 요구·스팸 메시지 최소화 방안 등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식품 교역과 관련하여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해 스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스팸 메시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함.

3. 농식품 수출업체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⁵⁾

3.1. 조사개요

-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단계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농식품 수출업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식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295개임.
- 수출업체의 기본현황과⁶⁾ 수출단계의 기능별 구분인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물류 및 통관, 외환·보험, 고객관리 등 4단계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출업체의 기술 인지도, 사용 여부, 사용, 기술 활용 난이도, 수출 확대 유용성,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함.
- 조사 응답 업체 중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고 일반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3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고 신선 농식품을 취급하는 수출하는 업체가 29.8%, 온라인 수출을 하는 일반 농식품 수출업체가 26.4%, 온라인 수출을 하는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가 12.5%로 가장 적음.
- 온라인 수출 품목으로는 면류, 장류, 음료, 커피, 홍삼, 고춧가루 등 상온으로 운송이 가능한 농식품이 대부분이며, 신선 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수출은 키위, 떡류, 우유, 고구마 등 다양한 품목을 응답함.
 - 냉장 수출의 경우 냉동 수출에 비해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에 비교적 가까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보다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5)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두영 외(2021)를 참고 바람.

6) 기업의 종사자 수, 주소, 대표자 정보, 창업 연도 및 수출 시작 연도, 생산·가공·수출 방식, 매출액 및 수출액, 수출 품목 및 대상 국가, 주요 고객(업체/소비자), 신선농식품 수출 비중, 온라인 플랫폼 수출 여부, 온라인 수출액 비중, 온라인 수출 품목 및 대상국가, 온라인 수출액 시작 연도 및 수출액 등

3.2. 설문조사 결과

□ 디지털 기술 인지도

- 4점 척도 1(처음 들어본다), 2(어느 정도 안다), 3(잘 안다), 4(매우 잘 안다)를 활용하여 단계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조사결과 표본 전체(N=295)의 디지털 기술 전체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어느 정도 아는 수준으로 나타남.
- 온라인 수출여부와 일반 농식품·신선 농식품⁷⁾으로 표본을 그룹화하였을 때 온라인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는 2.2점으로 나타나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1.8점보다 높게 나타남.
- 무역 단계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고객 관리(홍보, 마케팅, 사후관리) 부분의 인지도가 2.4점으로 가장 높고, 거래선 확보 및 계약이 2.1점, 외환 및 금융이 1.9점, 물류 및 통관이 1.6점 순임.
 - 스마트폰 보급으로 전 국민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 지자체, aT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던 오프라인 박람회 사업이 대부분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디지털 기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활용 여부와 정책적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물류 및 통관의 경우 수출업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글로벌 물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부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업체와의 면담에서도 수출업체는 물류 및 통관 부분을 물류회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디

7) 여기서 신선 농식품은 운송과정에서 상온 보관이 어렵고 유통기한이 짧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의미함. 예를 들면, 일반컨테이너를 통해 운송이 어려워, 냉장·냉동 등 콜드체인(Cold-Chain)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지칭함.

지털 전환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류 업체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기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인지도 조사결과

단위: 점

무역 단계별 기술군		전체 N=295	온라인 수출함 N=115(39.0%)		온라인 수출안함 N=180(61.0%)	
			일반 농식품 N=78(65.2%)	신선 농식품 N=37(30.4%)	일반 농식품 N=92(51.1%)	신선 농식품 N=88(48.9%)
평균		2.0	2.2	2.2	1.8	1.8
무역 단계별	거래선 확보 및 계약	2.1	2.4	2.4	1.9	1.8
	물류 및 통관	1.6	1.7	1.8	1.5	1.5
	외환 및 금융	1.9	2.2	2.1	1.7	1.9
	고객관리	2.4	2.7	2.6	2.2	2.2

주: 인지도는 4점 척도로 1(처음 들어본다), 2(어느 정도 안다), 3(잘 안다), 4(매우 잘 안다)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음.
자료: 이두영 외(2021).

□ 디지털 기술 사용여부

- 무역 단계별 기술에 대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함. 다만, 앞의 인지도 조사에서 각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사용 여부를 질문하지 않음. 즉, 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 기술의 사용 여부를 질문함.
-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평균 사용률(사용 업체 수/ 전체 업체 수)은 18.5%로 높은 수준은 아님. 무역 단계별로 보면, 고객관리 단계가 38.0%로 디지털 기술 사용률이 가장 높고, 거래선 확보 및 계약이 19.2%, 외환 및 금융이 13.4%, 물류 및 통관이 10.1%로 가장 낮음.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여부 조사결과(사용률)

단위: %

무역 단계별 기술군		전체	온라인 수출함		온라인 수출안함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평균		18.5	33.3	39.6	8.5	6.9
무역 단계별	거래선 확보 및 계약	19.2	46.2	48.0	2.2	1.1
	물류 및 통관	10.1	14.5	20.7	5.4	6.4
	외환 및 금융	13.4	22.2	33.3	5.4	5.7
	고객관리	31.2	50.3	56.2	21.1	14.3

주: 그룹별 사용 업체 수를 표본 수로 나누어서 백분율을 계산함. 인지도가 없는 업체 숫자가 포함됨.
 자료: 이두영 외(2021).

- 다만, 온라인 수출업체의 전체 평균은 일반 농식품과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가 각각 평균 33.3%, 39.6%인 것에 비해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는 일반 농식품 수출업체와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의 평균이 각각 8.5%, 6.9%로 사용률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사용하는 업체 수도 적어 사용률이 크게 낮은 수준임.⁸⁾
- 인지도 결과와 유사하게 수출기업의 B2B·B2C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전자문서를 활용한 수출신고 및 통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 온라인(화상) 박람회 참가 등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이 나타나는 분야는 온라인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도가 크게 높음. 반면, 웹/모바일을 통한 수출물의 상태 모니터링의 경우 사용률이 낮게 나타남. 이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기술의 사용 비용은 높고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 모든 기술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농식품 및 수출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8) 참고로 사용률 계산 과정에서 인지도가 없는 업체 숫자를 포함하여 백분율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업체를 포함하지 않아 사용률이 과소 계산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인지도가 없는 업체 숫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사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디지털 기술 사용 난이도

-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5점 척도)⁹⁾ 평균은 3.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무역 단계별로 보면 고객관리 단계와 물류 및 통관 단계가 3.2점으로 가장 낮고, 외환 및 금융 단계가 3.3점,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가 3.5점으로 가장 어렵다고 평가함.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전체)

단위: 점

무역 단계별 기술군	전체	온라인 수출함		온라인 수출안함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전체 평균	3.3	3.3	3.0	3.4	3.3
거래선 확보 및 계약	3.5	3.4	3.2	3.6	3.6
물류 및 통관	3.2	3.2	3.0	3.3	3.2
외환 및 금융	3.3	3.4	3.1	3.3	3.3
고객관리	3.2	3.1	2.8	3.2	3.3

주: 난이도는 5점 척도로 1(매우 쉬움), 2(쉬움), 3(보통), 4(어려움), 5(매우 어려움)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음.
자료: 이두영 외(2021).

- 거래선 확보 및 계약에서 수출업체의 B2B·B2C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간단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과 인력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함. 이 부분은 고객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분의 난이도가 다른 기술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도 같은 맥락임.
- 고객관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은 수출업체가 다른 항목에 비해 기술사용에 어려움을 크게 겪는 부분임. 빅데이터 분석은 자료 수집 및 해석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규모 수출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출업체의 수요를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컨설팅 또는 자료를 통해 수출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적합함.

9) 5점 척도로 1은 매우 쉬움, 2는 쉬움, 3은 보통, 4는 어려움, 5는 매우 어려움으로 보기가 구성되었음.

□ 디지털 기술 수출 확대 유용성

-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¹⁰⁾ 평균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무역 단계별로 보면 물류 및 통관 단계가 3.3점으로 가장 높고, 고객관리 단계가 3.1점, 외환 및 금융 단계와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가 3.0점으로 가장 낮다고 평가함.

그룹·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

단위: 점

무역 단계별 기술군	전체	온라인 수출함		온라인 수출안함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일반 농식품	신선 농식품
전체 평균	3.1	3.1	3.1	3.0	3.1
거래선 확보 및 계약	3.0	3.1	3.1	2.9	2.9
물류 및 통관	3.3	3.3	3.4	3.1	3.3
외환 및 금융	3.0	2.9	3.1	3.0	3.1
고객관리	3.1	3.2	2.9	3.1	3.1

주: 유용성은 5점 척도로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음.
 자료: 이두영 외(2021).

- 그룹별로 보면, 온라인 수출을 하는 일반 농식품 수출업체와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는 평균 3.1점, 온라인 수출을 하지 않는 일반 농식품 수출업체와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는 각각 3.0점과 3.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온라인 수출을 하는 일반 농식품 수출업체는 B2B·B2C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다른 그룹보다 유용성을 높게 평가함.
 - 일반 농식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상온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신선 농식품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선 농식품의 경우 개별 배송이 이루어지는 B2C 플랫폼보다 대량의 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플랫폼이 적합할 것임.

10) 5점 척도로 1은 매우 낮음, 2는 낮음, 3은 보통, 4는 높음, 5는 매우 높음으로 보기가 구성되었음.

□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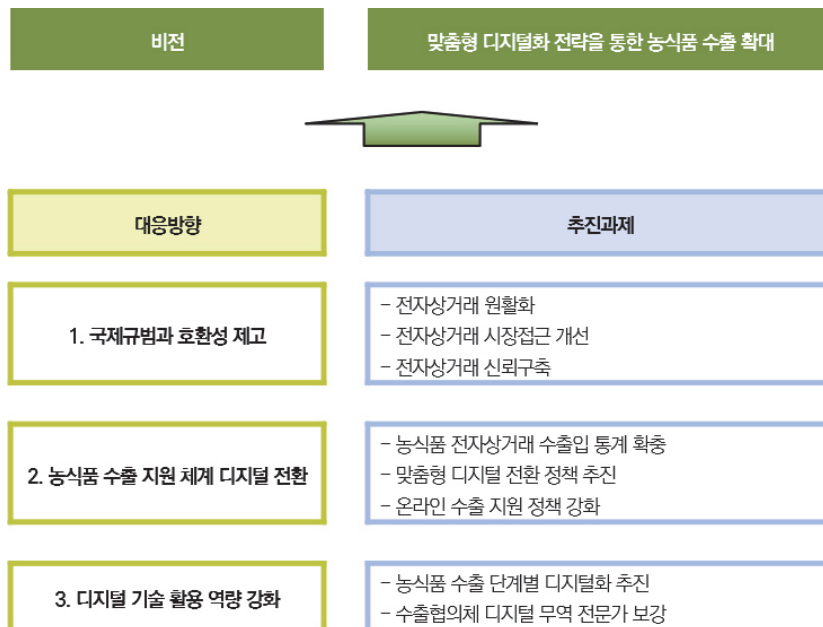
-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관련 애로 사항을 사용업체와 미사용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리고 디지털 기술 애로사항은 수출업체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와 고객관리 단계의 애로사항과 수출업체보다 디지털 무역 인프라와 관련성이 높은 물류 및 통관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와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지비와 거래상대방의 미사용도 응답률이 높음.
 - 인력과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입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수출업체의 거래선이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음.
- 물류 및 통관 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에서의 애로 사항으로는 사용이 복잡하고 설치 및 유지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물류 및 통관 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는 수출업체의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글로벌 물류업체와 전자문서 등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음. 이 부분은 글로벌 물류업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사용자인 수출업체가 이용하기 편하며 수익성이 있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4. 시사점

4.1. 대응방향

-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으로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설정함. 그리고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함.
 - 디지털 기술 사용이 확대되더라도 국가별·품목별 차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무역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수출업체의 디지털 무역 역량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함.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과 대응방향



자료: 이두영 외(2021).

4.2. 추진과제

-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의 세부 추진과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신뢰구축임.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규범과 합치되는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농식품 수출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이없는 무역,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국내 전자전송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해야함. 또한 디지털 무역에 따른 디지털 정보 보호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확충,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 강화임.
 - 농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도로 작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역 상대국의 디지털 전환 정도와 품목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농식품 수출 전용 B2B 플랫폼 역할 확대·케이푸드트레이드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능 강화·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책의 단계화·플랫폼 지원 사업 간 연계적 운영 강화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수출 단계별 디지털화 추진과 수출협업체의 디지털 전문가 보강임.
 - 농식품 온라인 수출 단계 중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와 고객 관리 단계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물류 및 통관 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는 농식품 수출업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야 함.
 -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체적인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책담당자, 디지털 기술 전문가, 물류회사, 디지털 기술 운영업체 등 디지털 무역 관련 종사자는 협력과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함. 마지막으로, 현재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수출협의회에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체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